세미나자료집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일시 : 2013년 7월 5일 14:00 ~ 16:3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세부일정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4:4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40~15:00	발표1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15:00~15:20	발표2	신선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15:40	발표3	이규철(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장)
15:40~16:20	토론	김택환(경기대학교 교수) 이은주(서강대학교 강사) 김영희(「대한민국 엄마들이 꿈꾸는 덴마크식 교육법」 저자)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20~16:30	폐회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 1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2.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 ····· 33

신선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 67

이규철(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장)

1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이 민 희

평택대학교 교수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

이 민 희(평택대학교 교수)

1. 청소년 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독일의 청소년 활동정책은 한국과 같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청소년 활동정책을 이해하려면 독일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독일의 청소년정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 대하여 복지적 접근과, 보호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다. 독일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교육'의 개념을 보통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으로서의 행동양식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Erziehung'*과 인간 개체의 이상적인 전인적 형성을 의미하고 있는 *'Bildung'*[1]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은 독일에서 '학교 밖 교육'을 의미하는 *'außerschulische Bildung'*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전인적으로 교육하는 상당히 넓은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의 실천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사업*(Jugendarbeit; youth work)*'과 소수의 복지 대상 청소년을 위해서 있는 '청소년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 youth social work)*'이다.[2] 독일의 청소년 활동정책은 대부분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독일의 '청소년사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

1) 한국에서는 보통 '도야(陶冶)'로 번역되고 있으나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헤겔(Hegel) 철학에 있어서도 인간 정신 형성의 중요한 개념인 '*Bildung*'은 여기서 굳이 내용적 의미로 번역하자면 '참 인간상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민희(1995). 과학화 사회에서의 도야(*Bildung*)의 교육적 의미. 철학교육연구, 11(24), pp. 91~99 참조. 서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2)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은 한국의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분적으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을 근거로 '청소년보호사업*(Jugendschutzarbeit; youth protection work)*'이 수행되고 있다.

한다. 이와 함께 독일의 청소년 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논할 때에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19세기 말에 태동되어 독일 청소년활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 이다. 아래에서 이들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보자.

1.1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 [3]

독일 청소년활동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운동'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19세기 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Berlin) 시 한 지역인 슈테글리츠(Steglitz)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의 도보로 자연을 유람하는 활동 그룹인 '반더포겔*(Wandervogel)*' [4]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독일 '청소년운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도보활동 그룹은 1895년 당시 독일 베를린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호프만(H. Hoffmann; 1875~1955)에 의해 주도되다가 슈테글리츠 김나지움에 다니던 피셔(K. Fisher; 1881~1941)에 의해 승계되었다. 피셔는 1901년 몇몇 성인들의 인정아래 동아리 단체 이름을 '반더포겔, 학생원족협회'라 짓고 전국으로 이 도보 유람활동을 확대해 나아갔다. 청소년들이 산과 들, 바다와 같은 자연을 유오하는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시작된 '청소년운동'은 이후 독일의 기독교 청소년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국민교육운동, 문화예술교육운동 등 당시 독일 사회변혁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독일의 청소년활동에 많은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해 시작된 뜻 깊은 '청소년운동'은 점차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발적이고, 낭만적이던 원초적 동력을 잃어가다가 마침내 1933년 히틀러의 독재가 시작되면서 이 운동의 보수적 단체들은 '히틀러청소년(*Hitlerjugend*)'으로 편입되었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금지되거나 저항단체와 연계되었다.

1.2 1945년 이후 '청소년사업' [5]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의 청소년사업은 미국 군정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당시에는 지역차원에서 복지적인 청소년지원과 단체들의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 외에 미 군정에 의해 공적으로

---

3) 이 글의 내용은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운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 청소년운동을 통한 21세기 한국사회 변혁의 가능성 탐색' 연구논문(이민희, 2011)에서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4) 독일 '청소년운동'을 최초로 주도한 공식적인 도보여행 단체인 '반더포겔'은 독일어로 '떠돌다, 유랑하다'라는 의미의 '*wandern*'과 '새'를 뜻하는 '*Vogel*'의 합성어로 원래 '철새(*Wandervogel*)'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의인화 되어 '떠돌이'의 의미도 있다.

5) Deinet, U. & Sturzenhecker, B.(Hg.)(2013[4]). *Handbuch offene Kinder– und Jugendarbeit*. Wiesbaden: VS Springer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 pp.37~47 참조

"독일 청소년활동*(German Youth Activities; GYA)*"의 이름으로 클럽활동들이 주도되어 청소년 사업의 새로운 서비스로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1951년에는 미국이 점령했던 지역의 주(州)들에는 미국인과 독일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청소년활동이 지도되었던 청소년센터가 256개나 되었고, 이는 전후 야기될 수 있는 범죄와 부랑생활, 정치적 급진에 대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능하였다. 여기서는 10~18세 청소년들에게 강요되지 않고, 자유로운 게임, 스포츠, 연극, 음악, 영화, 수공예 등의 활동들이 제공되었고, 그룹아르바이트, 특강, 토론 등도 개최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점차 독일이 이러한 청소년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청소년사업들을 책임지고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한 시설은 '열린 문 집회소*(Heimen der Offenen Tür; HOT)*'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HOT와 같이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들이 1148개나 되었고, 점차 변화하는 전후 독일사회의 발전 속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소비 욕구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설과 모임의 형태도 '청소년 클럽*(Jugendclub)*'으로 새롭게 그의 구조적 형태를 바꾸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학생운동은 1970년대 들어와서 청소년사업을 현대화하는 청소년센터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대학도시로부터 출발하여 청소년을 연구하는 사회교육학 전공 대학생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외부 결정보다 자결(自決)",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제 없는 자유", "도시 관리보다 자율관리"를 구호로 새로운 청소년사업의 개념들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와 교육적 실험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의 확충을 요구하였다.[6] 이러한 요구는 청소년센터운동으로 전개되어 자신들의 공간과 청소년의 해방욕구들을 위한 투쟁으로 나타나[7] 청소년센터운동은 당시 청소년정책의 지배적인 주제였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창조적이고 의식화된 청소년활동들은 공공 청소년사업을 매력적인 실험의 장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에는 청소년사업 관련 시설들이 전국에 4,000개가 넘었고, 3,100명의 전문적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1970년대 말 독일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1980년대에는 사회문제들과 더불어 청소년실업과 약물소비와 같은 청소년문제들이 등장하였다. 특히 하층계급의 청소년들은 저항이 심하였고, 이들 중 활동적인 청소년들은 대안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그룹들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회의 시선은 청소년들을 문제의 그룹으로 보았고, 청소년사업의 과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오와 분열을 막는 것과 동시에 통합과 상황의 극복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와서 청소년사업은 새로운 이론적 출발과 개념들을 가지고 강화되었

6) 이들은 당시 독일 전국의 지방에 고작 214개의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이 제공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의 양적, 질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7) 당시 이들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 집들을 점거하였다.

다. 무엇보다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청소년사업과 교육적인 관계의 재정립, 그리고 학교와 청소년지원 간의 네트워크 도입이 시도되어서 개방된 사회적 공간제공,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개발, 통합된 청소년의 일상생활, 종일 서비스제공, 사회적 결손 청소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의 청소년사업은 현재 경제논리와 통제와 평가의 메카니즘*(mechanism)* 소용돌이 속에서 예산감축을 겪고 있다.

2. 청소년활동의 개념

독일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한국에서와 같이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고, 청소년정책의 한 영역을 대표하는 개념도 아니다.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청소년사업'의 개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의 청소년사업은 대부분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을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독일의 법령은「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이다. 이 법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이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명시하여 표면적으로는 한국의「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의 대표적인 3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보인다.[8] 비록 한국의 '청소년활동' 개념 과 내용이 독일의 그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사업의 의미는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청소년활동'의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독일의「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제11조(청소년사업)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①항에서 "젊은이들에게[9] 그들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년사업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로 청소년사업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고, ②항에서는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단체, 청소년그룹들, 청소년 이니셔티브들*(initiativen)*, 그 밖의 청소년사업 수행자들와 공공 청소년지원 수행자들로부터 제공된다."로 청소년사업의 주체들을 명시하고 있다. ③항에서 정하고 있는 1~6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사업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1. 학교 밖의 일반적, 정치적,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자연학습적, 기술적 육성을 동반한 학교 밖의 청소년육성[10] 2. 스포츠,

8) 뒤에서 독일의 청소년관련 법령들을 고찰하겠지만 독일은 한국과 같이 청소년복지와 청소년활동 영역에 각각「청소년 복지지원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청소년보호 영역에는「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9)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junger Mensch*)는 14~27세까지의 연령대를 총칭한다.

놀이, 교제에서의 청소년사업 3. 노동세계 관련, 학교 관련, 가족 관련 청소년사업 4. 국제적 청소년사업 5. 아동 및 청소년 여가 6. 청소년상담" 으로 구성되어 있다(BmfFSFJ[11], 2007: 74).

위의「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제11조 ③항의 1~6호의 청소년사업 내용을 보면 '육성' 과 '청소년사업' 의 용어대신 '활동' 을 치환하여 보면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의 내용과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법의 제11조(청소년사업)에서뿐만 아니라「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전체를 찾아보아도 '활동(*Aktivität; activity*)' 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의 의미를 새겨보면 독일에서는 '활동' 을 청소년사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보지 않고,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지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즉, 한국의 청소년정책에서는 '활동' 을 정책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그리고 활동의 제반 여건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정책의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핵심 개념으로 보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 '활동' 은 다양한 청소년사업의 내용들을 수행할 때에 행해지는 하나의 수단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언어사용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행위와 사물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용어의 사용 즉, 과학적 개념의 대상 적용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문화이다. 따라서 '활동' 의 독일 청소년정책에서의 의미는 실천현장이나 정책입안에 있어서도 신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체험적이고, 교육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안에서 '활동' 의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협의적 의미로서 단위프로그램 활동을 지칭할 때에 쓰이는 용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청소년정책에서는 현재 한국의 청소년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의 개념정립에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새롭게 대안적으로 등장한 '역량(*Kompetenz; competency*)' 이라는 개념을 활동을 대신하거나 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도 이 용어의 사용을 찾을 수 없고, 청소년지도자의 실무역량을 말하면서 '역량' 이란 용어를 잠시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 '역량' 이란 용어는 후기자본주의의 더욱 심화된 기술지상주의적 경제산업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교육이 본연의 내재적

---

10) '청소년육성' 의 이 법에서의 원어는 '*Jugendbildung*' 이고 이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청소년교육' 이다.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교육의 개념이 협의로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Erziehung*' 과 우리나라에서 '도야' 로 번역되고 있고, 보다 전통적이고, 전 생애에 걸친 전인적 교육을 의미하는 '*Bildung*' 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비록 고답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의 지식적 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전인적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아직 청소년정책과 관련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인 '육성' 으로 '*Bildung*' 을 번역하였다.

11)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본질을 상실하고 교육과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기능화, 계량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능주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역량의 개념은 기능주의적 지식교육에 치우친 한국의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에게 덕성과 신체의 건강함을 제공하여 전인적인 참된 인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의 이념과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주체적인 수단인 '청소년활동'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그 내포와 외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가지는 위치와 의미는 독일에서는 '청소년사업'의 위치와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청소년사업'은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학교 밖 여가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서 여가시간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훈련이나 기타 다른 책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공간을 포함한다. '청소년사업'은 다른 사회화 서비스기관들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 또한, '청소년사업'은 무엇보다 학교와 같이 지적 능력이나 직업관련 교육으로부터의 사회화 과정이 아니고, 실제 청소년들의 욕구와 흥미로부터 그의 감성적이고 사회적인 개체발달을 강화하고, 창의성을 펼치며, 그들의 소통과 협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H. Blankertz et al., 1992: 316).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우리의「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비중의「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우리의 청소년활동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을 '청소년사업'에서 주로 다루고, 독일에는 우리와 같이 청소년복지 영역을 기초하는「청소년복지지원법」이 따로 없기에「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청소년사회사업'이라는 개념 아래 청소년복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한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청소년활동'을 직접 '청소년사업'으로 바꾸자는 생각이나,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사업'으로 대체하자는 견해는(김영호, 2012)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적 상황과 환경이 독일과 달리 극심한 학벌사회 속에서의 대학입학 시험 준비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육성'과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가지는 위치와 의미는 특수할 수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육성'이라는 용어가 청소년들의 자발적, 자율적 참여를 저해하는 진부적 용어라 이를 청소년에게 주체성을 돌려주는 취지로 '지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고려해 볼만하다.

3. 청소년 활동정책의 현황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독일에는 '청소년활동정책'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활동'과 가장 유사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청소년사업'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독일의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청소년사업'에 관한 현황 즉,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 시설, 지도인력, 프로그램 등의 현황을 고찰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다.

3.1 청소년활동 관련 법제 현황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요소는 역시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이다. 독일은 이미 1839년 프로이센 시대에 청소년들의 노동을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1922년「제국청소년복지법」[12]이 제정되어 192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정 당시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직업 기술을 위한 교육의 권리, 부모들의 교육권과 책임에 대한 관계와 민간 청소년지원과 공적지원의 관계의 확정,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와 지방에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로 청소년청(*Jugendamt*)를 설치하여 청소년복지를 위한 담당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배치하는 세 가지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13] 이 법은 이후 1960년에「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gesetz*)으로 개정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통독 후 1990년 독일의「사회법」(SGB)[14] Ⅷ권에서 정하고 있는「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으로 두 차례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1990년에 마련된 독일의 현행「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제1조 1항에서 "모든 젊은이는 개인의 발달을 위하여 지원받을 권리와 책임이 있고, 사회생활 능력이 있는 한 개체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정책 목표는 이러한 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의 대상도 동법 제7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은 14세 미만[15],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젊은 성년(成年)'은 18세 이상 26세, 모든 '젊은이'는 27세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BmfFSFJ, 2007: 69~71).

독일의「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정책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보면 청소년사업과 청소년사회사업, 그리고 가족차원에서의 교육 지원, 탁아시설 지원, 교육적 아동 · 청소

12)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13) DTV(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pp. XXXXⅡ 참고
14) *Sozialgesetzbuch*
15) 단, 동법 제1조 2항에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과 교육은 자연권이고 최우선의 의무이다"라고 하는 경우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의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년보호 지원, 정신장애 아동 · 청소년지원, 아동 · 청소년 일시보호, 부모의 별거와 이혼에 따른 화해 · 조정 · 양육권 문제 상담 등이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청소년활동과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앞에서 이미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서술할 때에 소개되었던 제11조의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내용은 주로 한국의 청소년활동정책에 속하는 내용들과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활동 등 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활동정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에 해당되는 독일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을 안내하는 소책자에서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청소년들의 관심을 연계해 주거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서비스들과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청소년지원의 장(場)이다." (BmfFSFJ, 2007: 23)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법 제12조에는 청소년단체들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스포츠청소년단체나 다른 청소년단체들에는 회원제로 가입이 되지만, 개방의집(*Häuser der Offenen Tür*), 청소년센터(*Jugendzentren*)과 같은 청소년기관들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중점적인 청소년사업들에는 국제청소년교류, 청소년여가, 청소년상담들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있고, 그들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놀이와 음악의 이동식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인터넷카페와 컴퓨터 활용 공간들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미디어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청소년사업들은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스포츠청소년, 적십자청소년, 소방청소년 등과 같은 전통이 있는 청소년단체들에 청소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회나 조합, 또는 지방의 청소년센터들의 청소년사업들은 청소년 모임들의 연결점이 된다. 여기에서는 그룹아르바이트 활동, 방학여가활동, 디스코축제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제공된다. 또 다른 청소년들은 청소년청이나 민간단체들의 구성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정치적 참여의도를 가지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소년이니셔티브(*Jugendinitiativen*)[16]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청소년이니셔티브의 최근 새로운 활동 주제들은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9조 3항의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감소하고 동등한 권리를 촉진" 하는 일이다(BmfFSFJ, 2007: 73).

이렇게 청소년사업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들과 함께 독일에서 특별히 청소년들

16) 청소년이니셔티브는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문제들에 뜻을 같이 하는 청소년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하여 과학적인 연구과 지식 및 정보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철하려는 일종의 시민 결사단체로서 독일 전국의 기초단체 단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고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관계법령으로는「자원사회봉사년(年)권장법」(FSJG)[17],「환경보호 자원봉사년(年)권장법」(FÖJG)[18] 두 법령이 있다. 먼저 자발적 사회봉사자를 우대하는 법인「자원사회봉사년(年)권장법」은 일찍이 1964년부터 시행되어온 법 제도로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사회봉사는 1년 동안 이루어지고 하루 종일 보조역할이나, 교육역할 또는 가정경제적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봉사활동은 병원, 양로원, 보육원, 아동보호소, 청소년센터, 청소년폭력예방치료 기관, 휴양소, 재활복지 기관, 가정지원 등의 장소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19] 27세까지이고 봉사기간은 12개월 동안만 1회적으로 봉사가 수행된다. 이 중 6개월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사회봉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적합한 일이라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봉사 참여자들에게는 숙소와 의복, 소정의 용돈이 주어지고 연금보험에도 가입된다. 만일 숙소 등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보조금이 주어지게 된다. 사회봉사 기관이 지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의 봉사도 가능하다. 사회봉사를 마친 후에는 수료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활동은 교육기간으로 간주되어 소정의 용돈외의 임금은 지불되지 않고, 실습이나 직업교육 혹은 군복무 대체나 사회봉사 성격은 아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자들은 대학교 입학 시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점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1993년부터 시행이 되어온「환경보호자원봉사년(年)권장법」은 위의 자원사회봉사자 우대제도와 제도적 취지와 제반 내용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단지 참여자가 수행하는 일의 내용이 사회봉사가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대체로 실습 관련 제반 내용은 위의 자발적 사회봉사자에 대한 우대제도와 같으나 참가자의 연령이 한 살 낮아 만 17세~27세 사이의 연령이 참여할 수 있다.이 제도도 법에는 구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발적 사회봉사의 해' 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BmfFSFJ, 2012: 408~410).

3.2 청소년 활동시설 및 인구 현황

독일의 청소년 관련 활동시설들은 매우 다양하다. 숙박이 가능한 활동시설부터, 생활권의 개방형 청소년 시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활동 시설, 그리고 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의 인구는 2010년 통계로 총 8,171만 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 0~19가 1,399만 5,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7.1%를 차지하고 있고, 19~30세는 1,081만

17) FSJG : *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sozialen Jahres*
18) FÖJG : *Gesetz zur Förderung eines freiwilligen ökologischen Jahres*
19) 독일은 고등학교 최종학년 연령이 19세에 해당한다.

1,000명으로 13.2%에 해당한다. 13~25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만은 913만 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1,2%로 나타났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2).

가. 독일의 청소년수련활동

<표-1> 독일의 유스호스텔 현황(2009)

(단위: 개/명)

독일전체(Deutschland) 및 16개 주	유스호스텔	침대	총 숙박자	숙박자 분류				
				유랑 청소년	가족 단위	유랑[20] 그룹	학생 청소년	기타[21]
Deutschland	**541**	**75 057**	**10 233 270**	**602 960**	**1 778 684**	**1 790 251**	**4 062 898**	**1 998 477**
Baden-Württemberg	59	8 529	1 112 026	62 789	154 740	266 318	438 508	189 671
Bayern	73	9 413	1 335 529	75 965	251 581	140 852	616 701	250 430
Berlin	3	736	192 099	20 197	37 542	11 348	94 044	28 968
Brandenburg	18	1 884	217 872	4 420	39 771	50 137	89 510	34 034
Bremen	2	422	74 896	9 707	13 200	12 322	22 718	16 949
Hamburg	2	624	164 302	23 292	39 287	13 259	53 150	35 314
Hessen	36	6 129	804 309	57 051	77 121	124 863	309 920	235 354
Mecklenburg-Vorpommern	27	3 215	443 570	48 287	130 254	61 003	127 831	76 195
Niedersachsen	73	10 293	1 318 166	39 135	207 270	266 189	554 289	251 283
Nordrhein-Westfalen	75	12 162	1 713 310	155 488	188 967	377 982	727 352	263 521
Rheinland-Pfalz	35	4 791	873 458	12 943	261 491	132 686	285 391	180 947
Saarland	5	728	126 685	3 881	30 016	25 098	37 754	29 936
Sachsen	42	4 451	410 630	14 117	71 379	104 141	140 812	80 181
Sachsen-Anhalt	18	2 501	314 171	29 508	72 540	67 538	94 769	49 816
Schleswig-Holstein	41	6 214	820 200	26 485	148 979	75 978	338 277	230 481
Thüringen	32	2 965	312 047	19 695	54 546	60 537	135 311	45 397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2010)

독일연방통계청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2009년 현재 독일의 대표적인 자연권 수련시설이라 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Jugendherberge*)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에 총 541개소이다. 2009년의 총 이용 숙박자의 수는 천만 명이 넘어 10,233,270명에 달한다. 이중 개별적인 유랑(流浪; *wandern*) 청소년[22]은 약 60만 명이 넘으며,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가자가 약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은 광역시 주에도 유스호스텔이 2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시에만 3개의 유스호스텔이 있고, 평균 침대수가 200개가 넘으며, 연중 10만 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20) 일반 휴가자들도 포함되었다.
21) 성인이나 직업교육이나 집회 참가 청소년들
22) 독일에서는 '여행(*Reise*)'과는 달리 주로 도보로 자연을 유람하는 것을 '유랑(*Wandernung*)'으로 표기하는데 19세기말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의 모태로 유명하다.

밖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게스트하우스*(Jugendgästhaus)*, 청소년숙박소*(Jugendübernachtungshaus)*를 포함하면 2010년 기준 총 771개소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생활권 수련시설들은 주로 개방형 청소년사업 시설들로서 앞에서 소개한 청소년센터(*Jugendzentrum)*, 열린문집회소(*Haus der offenen Tür*), 청소년여가집회소(*Jugend-freizeitheim*)가 7,661개소, 상근직 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청소년공간/청소년집*(Jugendräume/Jugendhäuser)*이 5,331개소, 1,017개소 이동식 청소년사업 시설, 334개의 교육적 놀이 장소 및 모험놀이 장소들이 있다. 이들의 운영주체는 등록된 청소년단체, 청소년연맹, 그룹들이 전체의 54.2%로 가장 많고, 공공은 18.3%, 복지단체가 4.1%, 교회단체가 11.7%, 그리고 자유 민간운영이 11.8%에 달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2: 240).

나. 독일의 청소년 스포츠활동

독일은 생활체육을 시행하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올림픽에 출천하는 선수들도 생활체육의 과정에서 선발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청소년스포츠단체에 가입을 하여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통계로 독일에서는 축구*(Fuß ball)*가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축구동호단체에 참여자가 약 650만명으로 가장 많은데 그 중 27세까지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수는 49.4%로 약 321만 명에 가깝다. 이 밖에도 생활체조*(Turnen)* 활동 단체에 참여하는 약 500만명 중 청소년은 약 216만명, 테니스*(Tennis)*를 동호회로 즐기는 수 약 153만 명 중 청소년의 참여자는 약 53만명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육상*(Leichtathletik)*에도 약 87만 명 정도가 의 인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청소년은 43만명이 참여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2: 212).

<표-2> 독일의 스포츠활동 시설 현황(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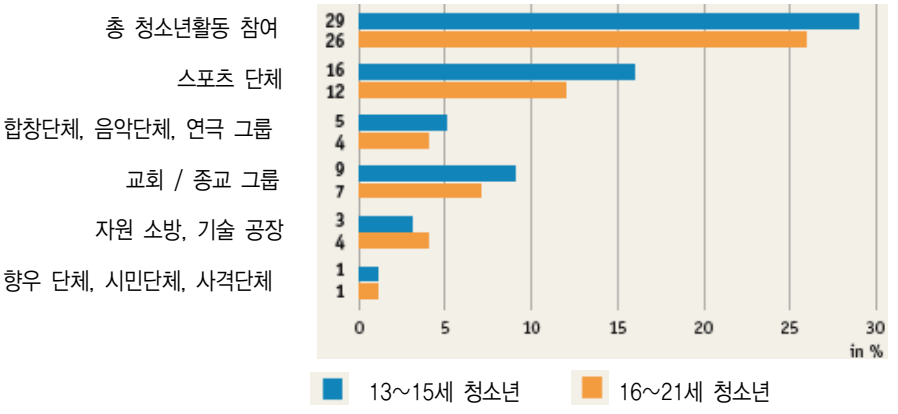
(단위: 개)

운영주체	스포츠 활동 시설 수	시 설 형 태						
		지붕 없는 시설	스포츠 홀	다목적 대형 스포츠 홀	실내외 수영장	실내외 테니스 장	빙상 경기 장	사격 경기 장
지방자치단체	78,340	39,631	29,969	313	6,113	1,402	95	817
기타 공공 기관	4,231	1,806	1,505	32	461	255	17	154
단체·협회·기타 조직	40,396	17,848	3,314	21	415	11,212	22	7,562
민간	4,037	288	411	19	653	2,437	47	181
미등록	1,165	587	213	22	142	108	4	89
총계	128,168	60,161	35,412	409	7,784	15,415	186	8,802

독일의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시설 현황은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2만 8,168개소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 지붕 없는 스포츠시설이 약 6만개 정도로 가장 많고, 시설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이 약 7만 8,000개, 단체나 협회 소속 시설이 약 4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0: 187).

다. 독일의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독일의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적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에서 청소년활동 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0%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이중에서 자발적으로 스포츠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가 약 17%정도로 가장 많고, 합창단이나 음악 단체, 연극 그룹 등 단체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약 5% 정도이다(BmfBF[23], 2012: 87). 이는 단체나 협회에 가입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수이고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활동은 생활화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후나 주말의 여가시간에는 대부분 다양한 청소년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1] 13~22세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 참여 비율

23) Bundesministerium für Bidung und Forschung

그리고 2010년 말 독일에는 현재 청소년예술학교(*Jugendkunstschule*)와 청소년 문화교육 및 문화 시설들이 330개소가 있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지도인력들은 약 3,600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문화활동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다른 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은 문화예술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매우 전문성이 수반된 문화예술활동을 의미하고 있다(BmfFSFJ, 2013: 322).

라. 국제 청소년교류활동

독일에서 청소년교류활동은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은 청소년사업의 주된 사업 중 하나로서 전국의 광역시, 주(州0,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유럽 등에서 주로 국제 청소년사업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독일에서 국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들의 인격의 성장과 경험을 넓히는 데 있어서와 다문화사회 속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성을 심어주고 극우주의와 외국인 적대심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의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은 다른 국가들과 이방 문화들의 이해를 돕고 EU를 포함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나 세계의 다른 지역들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주제들에 관하여 상호 또는 다자간의 대화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 청소년교류의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독일에서 통계에 의하면 1992년에는 6,800건의 국제 청소년교류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3,700건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청소년 수도 1992년에는 약 220,000명에 달했으나, 2008년에는 128,000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가 국제 청소년교류에는 「연방아동청소년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청소년들이 국제 청소년교류 사업에 매력을 잃었거나, 지원수단이 특히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mfFSFJ, 2013: 323~324).

독일의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독일-프랑스, 독일-폴랜드 청소년교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만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에만 약 2,080만 유로, 즉 약 315억 가량의 예산이 지출되었고, 이를 통해 10,000건이 넘는 상호 교류에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다. 독일-폴랜드 청소년교류에도 매년 약 890만 유로 즉, 약 135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2010년에 독일-폴랜드 청소년교류는 3,000건이 넘었고, 여기에 참가한 청소년의 수는 10만 명이 넘었다. 한 과학적인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Thomas u.a., 2007 참조, BmfFSFJ, 2013: 324, 재인용) 국제 청소년교류의 참가자들은 교류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뚜렷한 자아의식과 사회적, 간문화적, 언어적 역량이 상승되거나 인격 성장에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독일의 청소년 봉사활동

독일에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봉사활동의 길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독일은 청소년봉사활동이 생활 속에서의 교육과정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먼저 연방자원봉사(BFD; *Bundesfreiwilligendienst*)는 국가 자원봉사활동 기관으로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병역의무나 시민봉사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국제청소년자원봉사(IJFD; *Internationale Jugendfreiwilligendienst*)는 청소년들이 해외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이 밖에도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 관계법(FSJ, FÖJ)을 근간으로 하여 1년 동안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기회들에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4개의 통로를 통하여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약 7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과거 10년 전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자격이 있는 참여 청소년들의 2%에 불과했는데 이제 7%에 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수치이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서는 여성이(58%) 남성(42%)보다 더 많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fBF[24], 2012: 88~89).

3.3 청소년활동 지도인력 양성 현황

독일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자격검정을 거쳐 관련 시설 및 기관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양성과 배치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의 청소년관련법에는 이와 같이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청소년지도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청소년지도자는 사회교육사*(Sozialpädagoge)*와 사회사업사*(Sozialarbeiter; social worker)*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자격획득은 청소년정책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정책과 교육제도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교육과 사회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와 아동, 청소년, 노인,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세분화하여 배울 수 있다. 졸업 후에는 사회교육사나 사회사업사의 학위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대신하게 된다.

독일에서 청소년지도자의 범주는 크게 계약직(*befristet*)과 정규직*(unbefristet)* 근무자 모두를 포함한 주직업직*(hauptamtlich)*과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명예직*(ehremamtlich)*으로 구분할 수

24) BmfBF: *Bundesministerium für Bidung und Forschung*

있는데 명예 청소년지도자들에게 1999년부터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카드(JuLeiCa; *Bundeseinheitliche Card für Jugendleiterinnen und Jugendleiter)* 형태의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 실질적인 청소년지도자들은 카드를 지니고 있는 명예 청소년지도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고등교육을 통해 사회사업사나 사회교육사 자격을 얻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실질적이고 주된 청소년지도자라 할 수 있다.[25] 명예 청소년지도자들은 주로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인력수급이 어려운 민간 청소년단체연맹(*Jugendring*)들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 JuLeiCa를 가진 청소년들이 60%에 달하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의 역사를 살펴보면(A. Schwendtke et al, 1980: 112~115) 교육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돕는 지원 인력들이 최초로 그들의 일을 직업화하게 된 것은 산업혁명으로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일었던 19세기 말부터이다. 이후 전통적인 기독교적 구제의 일환인 '이웃사랑' 과 인본주의적 '인간애' 로부터의 사회교육과 사회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직업화와 과학화를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1899년 1년 과정으로, 그리고 1908년 베를린에서 2년 과정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도입했던 독일은 1911년에 최초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국가시험규정을 마련하여 베를린(Berli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카셀(Kassel) 세 도시를 청소년지도자 양성도시로 허가하였다. 이어서 독일은 1959년의 교육개혁으로부터 사회사업 *(Sozialarbeit)*의 전 영역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사회직업교육체계를 수요와 공급 및 현장이 바라는 수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갖추기 시작했다. 1966년부터는 사회교육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3년간의 수업과 사회사업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의 실습을 거쳐 '사회교육사' 의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는 직업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이들을 위한 전문화는 가속화되어서 1971년부터 전문학교*(Fachschule)*에서의 사회교육학*(Sozialpädagogik)*[26]과 사회사업 전공이 고등교육과정인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서 이 두 전공과정을 통합한 사회일반*(Sozialwesen)*[27] 전공으로 개설되면서 대학교에도 사회과학부의 사회일반 학과나 교육과학부 내의

---

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5년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주된 청소년지도자가 JuLeica 자격증 소지자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오류이며(길은배·이미라·문성호, 2005: 92~95), 이들은 자원봉사 청소년지도자로서 이들이 일하고 있는 청소년기관들은 20% 정도이고 점차 증가 일로에 있다. 'JuLeiCa' 는 '청소년지도자 카드' 의 독일어 약칭이며 '유라이카' 로 읽혀진다.

26) 독일 대학교의 사회교육학은 우리나라의 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보육학, 청소년학 등을 합쳐놓은 범주의 학문으로 교육학, 사회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과과정과 학업내용을 보면 학업의 질과 전문성에서 많이 다르다.

27) 이 '사회일반' 은 사회의 제반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 을 전공하는 것과는 다른 전공으로 우리의 '사회복지학부' 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어 형용사 '*sozial*' 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돕는 제반 사항에 관한' 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교육학과 전공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28] 독일이 통일되기 전인 1980년 통계에서만 서독의 153개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사회교육사나 사회사업사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A. Schwendtke et al, 1980: 279~280), 2008년에만 독일의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54,491명의 사회일반 전공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29]

아래의 표는 보육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인력을 제외한 50개 종류의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사회사업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근무하는 독일 청소년 지도인력의 2006년도 숫자로 그 수는 총 193,100명에 달하고 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 전역에서 일하는 아동 및 청소년 지도인력은 약 57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비율은 62%이었다. 청소년 지도인력 중 374,170명이 탁아소나 유치원의 보육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을 제외하면 약 20만 명 가깝게 공공과 민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될 수 있다.[30]

<표-3> 독일의 청소년지도자 배치 현황

(단위: 명)

공 공					민 간	총 계
기초자치단체 (청소년청없는)	청소년청	주 청소년청	최고 청소년기구	공공직영 청소년기관	청소년기관	
579	33,552	738	420	14,897	126,385	193,110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2008).

3.4 대표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례

독일에는 '청소년운동' 이래 100년이 넘는 청소년활동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찍부터 청소년의 미래 국가적 가치를 인식하고 청소년의 지·덕·체가 조화되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 견고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해온 독일은 이를 이루는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사업을 전개하여

28) 독일 고등교육 교과과정에 비록 사회교육사와 사회사업사를 위한 통합과정과 명칭으로 '사회일반' 이라는 학과가 신설되었으나, 지금까지도 대학의 학과는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교육학부 내의 '사회교육학과' 와 사회과학 학부 내의 '사회일반' 학과에서 사회교육사 학위(*Diplom–Pädagoge*)나 사회교육사/사회사업사(*Diplom–Pädagoge/Sozialarbeit*)로 졸업하게 된다.

29) 여기에는 교육학 전공 55,207명에서 사회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는 제외되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09: 147).

30) Pluto, L., Gragert, N., van Santen, E., Seckinger, M.(2007). *Kinder– und Jugendhilfe im Wandel. Eine empirische Strukturanalyse.*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 p. 517

왔다. 이러한 청소년지원의 인프라 위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는 1956년 독일계 교육자인 Kurt Hahn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영국의 Edinburgh 공작에게 건의하여 처음 시작되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행되고 있는 '에딘버러 포상 프로그램(The Duke of Edinburgh's Award)'[31]과 같은 사례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는 독일의 '청소년운동'에 있어서의 강점 중 하나가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의(이민희, 2011: 4) 전통적 함의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은연중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들 각각은 각기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치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같은 위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독일의 어느 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보다는 독일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청소년활동 지원 프로그램「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32]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은 어느 측면에서는 거시적으로 보어 지금까지 독일의 청소년정책을 있게 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자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은 하나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청소년사업 프로젝트로서 말해질 수도 있으며, 거대하고 포괄적인 한 종합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다.「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은 1964년 5월 10일~13일 사이에 베를린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처음에는 2년 주기로 개최되다가 1970년 이후 지금까지는 매4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지금까지 14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과제들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 프로그램은 1949년에 처음 설립된 '청소년지원연합'(AGJ[33])이라는 독일의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에서 처음 주관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름이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pflege und Jugendfürsorge*'였으나 1971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은 독일전역에 걸친 총합적인 포럼의 형태로 개최되며 전문적인 경험의 교류와 청소년정치적인 논의, 아동·청소년지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들과 수행들에 관한 소통과 전시 등이 행사의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의 핵심요소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 회합(*Fachkongress*)"과 전문박람회*(Fachmesse)*라고

31) 이를 한국에서는 '국제성취포상제'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32) '*Deutscher Jugendhilfetag*'을 한국어로 직역하면 '독일 청소년지원일'이나 이 프로그램은 하루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의 한 주간을 축제 형태로 진행되기에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으로 번역하였다. 아래에 소개된 내용들은 행사의 주관단체인 독일의 '청소년지원연합' AGJ(*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가 개최한 12번 째 행사 안내책자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AGJ, 2004).

33) AGJ는 독일의 민간과 공공의 청소년지원과 관계된 연합들과 조직들, 기구들의 연방차원의 중심적인 포럼이자 네트워크이다.

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 광장" *(Markt der Jugendhilfe)*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도 이를 참고하여 매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지만 그 규모나 내용 면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행사는 청소년 관련 각종 박람회들이 총 집합하는 종합 박람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전문가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술적 발표회, 실천 현장의 모델 사례, 일상 사례들의 발표 등 청소년 영역의 종합적인 축제 형태의 박람회라 할 수 있다.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의 의미와 목적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관계자들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접촉, 경험과 아이디어의 교류 공간으로서 제공되고, 아동·청소년지원의 이론과 실천에서의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한 논의를 가능토록 해주며, 따라서 이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일상적 실천현장을 볼 수 있게 하고, 아동·청소년지원의 개념적 발전과 다양한 청소년 사업 및 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술혁신적 모델을 소개해 준다.
-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개선된 사회적 제반조건들을 함께 관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지원의 과제들, 제안들, 수행들에 관한 공공성을 알리고 있다.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은 이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의 공공, 민간, NGO, 기업 등이 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 관련 민·관·산·학·연 등 총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대한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는 이러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독일 전국의 청소년 행정체계를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뉴거버넌스 모델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2004년에 독일의 중소도시 오스나부뤼크(Osnabrück)에서 개최되었던 제12회「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오스나부뤼크에서 개최된 제12회「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은 독일의 2004년 6월 2일~4일까지 개최되었다. 제12회를 맞아 성대히 개최된「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에는 214개 전문가 회의와 93개 전문가 포럼, 36개 강연, 85개 프로젝트 *presentation*, 270명의 청소년지원 차원 전시자 참가, 3만 명의 관계자 등이 참가한 유럽에서 최대의 청소년지원 행사프로그램이 개최된 것이다. 행사는「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BmfFSFJ)의 국고와, 오스나부뤼크 시 자치단체 예산, 민간 기업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 스폰서들과 민간 및 공공 파트너 기관들을

잠시 소개하자면, 코카콜라, 독일텔레콤, 독일연방환경재단, 프롬마이어미디어, KM 유럽금속 AG, Metro Group, Sparkasse Osnabrück, NordWestBahn 철도주식회사, Schidhelm 변호사협회, Osnabrück 대학교, Werner-Egerland 장학재단 등이다.

제12회「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의 모토는 "*leben lernen*", 직역하면 "삶을 배우자"였다. 이 모토는 우리 사회의 과제를 "공공의 책임 안에서의 성장"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명되었다. 그러나 이 모토의 의미는 제도적 후원과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점차 그들의 삶에 있어 더 많은 기회들과 위험들과 맞서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책임과 함께 자신이 부여한 의미들을 지니고 독립적인 형태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아독립 경향이 "삶을 배우자"라는 모토를 표현하게 되었고, 이는 동시에 소년, 소녀와 청소년 남녀들은 스스로 연출한 사회화과정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서 자신들이 결정한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삶의 형성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삶들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12회「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에서는 4개의 중점 테마를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성장의 문화와 문화들", "삶의 과제로서의 교육", "고령화사회에서의 젊음", "사치가 아닌 것으로의 사회적 정의"이다.「독일 청소년지원 주간」에서는 이러한 중점 테마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들과 아동 및 청소년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중점 테마와 도전과제들은 그들의 취지와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청소년사업 프로젝트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다.

- 가족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원천이지만 제도들과 미디어, 피어그룹*(peer group)*들 그리고 많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즉,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거나 같은 정도로 되어 버렸다.
- 성별(性別)은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삶의 상황과 주도가 부분적으로 아주 동등하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통합 유럽을 배경으로 다른 문화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제들과 지도의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 교육은 삶의 과제가 되었고, 평생교육은 필수가 되어버렸다. 동시에 교육을 마쳤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개인적인 보장이 되지는 않고 있다.
- 사회적 통계는 아동은 불충분한 자산이 되었고 동시에 이들은 고령화사회에서 주변그룹으로

밀려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한편으로는 아동·청소년지원이 더 많은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 자명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적 현실로는 지원이 일부 소외계층만으로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 사회국가의 개혁들이 필요하다면 이 개혁들이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의 사회적 정의를 위한 목표를 어디까지 확정하고 있는지에 맞추어 측정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4. 청소년 활동정책의 전달체계

연방공화국인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서의 연방은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을 통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 지휘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8조 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에 의한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들을 자문한다. 셋째,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 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州)의 시행령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州) 자치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중요한 실질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달체계인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ß)*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술된 독일 청소년정책의 개괄적 이해를 토대로 아래에서는 독일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1 중앙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행정기구

가.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의 청소년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구는 통일 전 「연방여성·청소년부」(BmfFJ)[34]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국가적 작은 정부 지향 정책에 따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로 다소 축소되었다. 독일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실」은 독일의 「사회법」 8장인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공공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들에 근거하여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학계와 현장에서 일하는 15명 이하의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일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는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Bundesjugendkuratorium)* 기구를 가지고 있다.

독일 중앙 연방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다른 연방 관계부처와 주(州),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공적지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모든 정치영역과, 무엇보다도 교육, 건강, 근로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처는 청소년들을 다양한 가치지향과 내용과 방법, 근로형태로 지원하는 전국지역과 중앙의 자발적인 민간들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으며, 유럽의 청소년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과 변화에 있어서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정부는 독일에서의 청소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독립성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과학적 연구과제들을 장려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은 「연방아동·청소년계획」(KJP) [35]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교육 지원의 영역과 청소년사업의 영역아래에서 계획되어 수행되고 있다.

나. 「연방아동·청소년계획」(KJP) [36]

독일 중앙 연방의 청소년정책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핵심적 제도는 「연방아동·청소년계획」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50년 처음 수립되었던 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37]은 통일 후 1994년 이름을 「연방아동·청소년계획」으로 개칭한 이래로 독일 청소년정책 지원의 중심에 있다. 독일은 이 계획에 의해 연방차원의 민간 청소년지원 수행능력의 기간구조를 위한 제반여건들을 마련하고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의 평생교육 행사들과 청소년지원 아이디어들의 개발, 모델사업들의 시행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계획 초기에는 주로 전쟁고아나 망명자 중의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구제(救濟) 성격을 가졌으나

---

34)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

35)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36) *Kinder– und Jugendplan des Bundes*

37)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의 미래 건설을 위하여 「연방청소년계획」(*Bundesjugendplan; BJP*)을 먼저 수립하여 1992년 독일이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이 된 후 명칭을 「연방아동·청소년계획」으로 바꾼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계획의 내용에 따라 독일의 청소년정책이 매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의 독일 발전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1990년 한국에서 10개년 계획으로 시도되었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후에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바뀌어 현재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한국은 이 계획을 모델로 하였었다.

점차 사회가 안정되면서 정치교육이나 여가활동 등의 교육적 활동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활동 초기부터 첫째, 주(州)나 자치단체의 활동을 존중하고 둘째, 행정관청은 스스로의 활동보다는 민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진흥하고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이 원칙은 지금까지 그대로 고수되어 오고 있다(이종원, 1990: 227).

4.2 지방 주(州) 정부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독일의 청소년담당 지방단위 행정기구는 16개 주(州)마다 서로 다른 행정기구를 자치적으로 가지고 있다. 지방 업무의 중심에는 「주 청소년청」 *(Landesjugendamt)*과 여러 민간 및 공공 청소년관계자들이 연계되어 청소년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원도 주의 「청소년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독일은 주(州) 아래의 행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도 각기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자치적인 청소년 행정체계를 소속된 자치단체의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독일의 「청소년청」은 역사적으로 그 기원을 1900년의 시민법에서 지방고아원후견재판소에 찾아 볼 수 있다. 「청소년청」이란 이름으로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24년부터 시행된 「제국청소년복지법」에서 정하여진 이후 1925년부터여서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히틀러(Hitler)의 독재시대 때에는 이 기구가 가족과 아동, 청소년들을 출생 시부터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교조하는 역할을 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1947년부터 1952년까지 「청소년청」은 내무부 경찰관할하에 놓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서 어린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었다. 독일의 「사회법」 (SGB) Ⅷ권 에서는 모든 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이 「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치단체 「청소년청」은 독일의 모든 청소년정책의 실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수행의 중심에 서있다. 그의 설립을 「사회법」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독일 청소년정책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구라 할 수 있다. 「청소년청」은 따라서 각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청소년정책 업무의 기획, 시행, 예산 등을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독일의 행정체계에 따라 광역시에는 구(區)마다 「구 청소년청」 (*Bezirks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는 「시 청소년청」 *(Stadtjugenamt)*, 자치단체에는 「지역 청소년청」 *(Kreisjugendamt)*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독일에는 2011년 현재 563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이는 10년 전 616개보다 감소한 숫자이다(BmfFSFJ, 2013: 290).

4.3 독일의 민간 청소년정책 수행체계

독일의 민간 청소년정책 수행체계는 독일 연방과 주정부의 행정체계와 마찬가지로 연방 차원과 주(州) 차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Kommune*) 차원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과 단체들, 예를 들면 「독일연방청소년연맹」[38], 「독일스포츠청소년」[39], 「정치청소년연맹」[40]의 3개 기관들과 복지단체연합, 그리고 「청소년지원사업협회」[41]와 「독일유스호스텔연맹」[42] 「독일청소년연구소」[43]를 비롯한 다양한 독일의 대표적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있다. 이 영역에서 수행되는 정부의 공공 청소년정책과 긴밀한 협력관계와 때로는 감독내지는 비판적 관계에서 각기 고유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행정체계에 따른 하위 영역의 주와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공공 청소년 행정체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주와 자치단체에서는 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나 자치단체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에 대표들을 참여시켜 각 영역의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자문하거나 조언하기도하며, 다양한 청소년활동 관련 청소년사업들을 제안하고, 때로는 공공의 청소년행정을 비판하거나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5. 청소년 활동정책의 주요 이슈[44]

독일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매 정부 임기 말에 독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되는 「아동·청소년보고서」 이다. 2013년 1월 30일 독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된 14번째 「아동·청소년보고서」 는 특별히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 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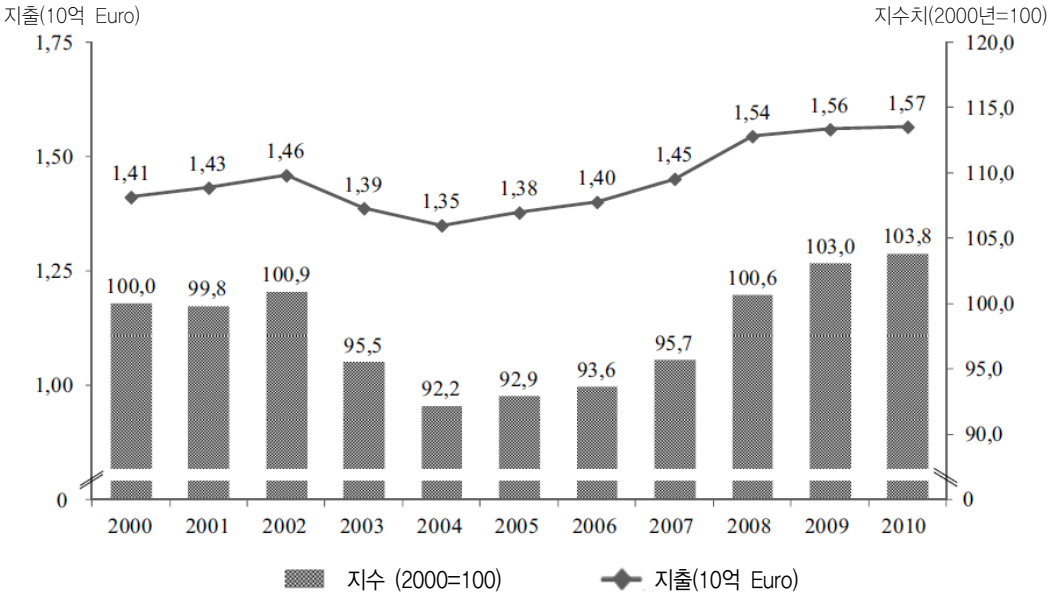
38) *Deutscher Bundesjugendring*(DBJR)
39) *Deutsche Sportjugend*(DSJ)
40) *Ring politischer Jugend*(RPJ)
41)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AGJ)
42) *Deutsche Jugendherbergswerk*(DJH)
43) *Deutsches Jugendinstitut*(DJI)
44) 독일은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 *(Kinder– und Jugendbericht)*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2013년 1월 30일에 14번째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가장 최근의 청소년활동 정책의 주요 이슈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3: 316~324).

의 형식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매 세 번 째 정부임기를 맞는 회기 때에는「아동·청소년보고서」가 그 동안의 정부 임기 기간의 아동 및 청소년 정책에 관한 종합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의「아동·청소년보고서」종합보고서는 2002년에 마지막으로 제출되었었다. 14번째「아동·청소년보고서」에는 위에서 이미 서술한 것과 같이 한국의 '청소년활동'의 내용들에 많은 부분이 해당되고 있는 '청소년사업'에 관하여도 지난 10년간 독일에 있어서의 청소년활동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개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5.1 청소년사업 영역에서의 주요 이슈

독일에서 청소년사업의 영역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에 있어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교육의 장이자 자생적 형태의 여가시간 활용의 장이고, 청소년 스스로 결성한 연대의 장이자 개방된 시설들의 특별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의 장은 그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비형식적*(non-formal)*, 비공식적*(informal)* 교육의 장이 거나 때로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기도 하는 청소년육성의 장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많은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장임인 동시에 늘 수행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개념들에 대한 현실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들로 비판이 있기도 한다. 정치 영역에서는 청소년사업에 대하여 항상 논쟁이 있고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도 시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사업이 새로운 목표그룹들에게 필요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여가시간의 장소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사업이 충분하게 혁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잘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해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장 맥락에서 보면 독일의 학교 밖에서 계획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교육적 의미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고, 청소년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성장의 지도 역할자로서의 충분한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잘 인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청소년사업은 늘 그랬듯이 학교 밖 청소년교육의 공간으로서 지난 수 년 간에 걸쳐 청소년들을 연대하고, 그들에게 공간들을 제공하며, 기회구조를 개방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질적 제고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사업 구조와 서비스들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청소년사업의 구조와 주요 이슈



[그림 3]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사업 정부예산 지출 상황(2000~2010)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청소년활동정책에 투입되고 있는 독일이지만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은 항상 제기되고 있는 주요 이슈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만 아동 및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약 15억 7천만 유로(Euro), 한국 돈으로 약 2조 3,760억 원[45]에 달하는 예산이 정부에서 지출되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2: 7). 독일은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아동 및 청소년 사업을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예산이 지출되는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고찰하면 청소년활동, 즉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시설들은 –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방학 및 여가 시설, 청소년집회소, 청소년센터, 청소년육성시설, 청소년 상담시설 등 – 2010년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15,500~16,700개소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약 45,100명에 이르고, 이러한 시설들에 참여하여 활동한 청소년의 수는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약33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010년의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사업을 위한 인프라구조는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과 비교했을 때에

45) 2013. 07. 01 환율 기준이고 독일의 6~21세 대상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출된 예산이다.

아동 및 청소년 사업을 위하여 지원된 모든 국가 총 예산은 실질적으로 2.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구 서독지역은 9.2%에서 5.3%로 뚜렷이 감소한 반면, 구 동독 지역은 2.5%에서 4.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는 이 기간 동안 보육과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학교 밖 아동 및 청소년 사업에는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총 예산이 7.6%에서 5.5%로 감축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Pothmann, J. 2010: 6~7, BmfFSFJ, 2013: 318, 재인용).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공공예산의 불안정한 상황은 청소년사업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청소년사업이 인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예산 실정은 더 심각하여 청소년사업을 부당하게도 민간의 과제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샌드위치" 와 같은 위험한 형편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한편으로는 2008년 새로 제정된「탁아시설과 가정보육에서의 3세미만 아동 지원법」(Kifög)[46] 법에 의해 3세 미만의 탁아시설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출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복지적 지원에의 예산 지출로부터 독일 청소년활동정책의 근본이 되는 청소년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나. 청소년사업 서비스 제공의 주요 이슈

독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청소년사업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특수한 중점과제들을 가진 개방된 형태로 방학 및 여가 대책들, 체육과 문화 서비스들, 국제 청소년교류 대책들, 청소년육성 시설들에서의 교육적 서비스들, 그리고 미디어사업, 여성센터와 같은 영역들에서도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에는 청소년사업의 활동영역이 더 확장되었는데 청소년문화사업 차원에서 학교와 협력하여 사업들이 개발되었고, 새로운 목표그룹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업의 서비스들은 남녀 동성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센터와 유사한 형태의 특수시설에서 수행되었고, 팬덤문화에서 축구에서의 청소년폭력예방의 맥락에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도 수행되었으며, 문화시설들과 함께 뉴미디어와 관련된 서비스들과 협력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서비스구조들은 서로 차이가 없지만 도시의 중심지역이나 지방의 공간에서의 청소년사업들이 서로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서비스 구조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접근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청소년단체의 사업 공간들과

46) *Gesetz zur Förderung von Kindern unter drei Jahr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Kindertagespflege* (*Kinderförderungsgesetz* – Kifög)

구조들에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과 단체들은 교회들이 사업주체가 되고 있거나, 청소년소방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스포츠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청소년사업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논하자면 아래와 같다.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주민 청소년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 종일학교(Ganztagsschule)의 확장과 중등교육에서의 수업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청소년시기가 변화되고 있다.
- 뉴미디어의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택을 부여하는 상업적 서비스들의 제공으로 청소년사업과의 경쟁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 각종 청소년비행으로부터 예방의 방향으로 청소년사업이 연계되어 가고 있고, 학교 밖 교육공간으로서 청소년사업의 역할에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구조 속에서 독일 민관의 청소년사업 주체들은 그들의 매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를 찾는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사업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출발점의 상황들과 지역적 상이함의 조건들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6. 독일 청소년 활동정책의 시사점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보면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제반 여건들및 환경이 많이 다른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결과가 양국의 청소년정책의 양적, 질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청소년활동정책의 독일사례가 한국과의 다름과 차이에서 주고 있는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이들에 관하여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첫째, 독일의 청소년정책 행정체계에 있어서 이미 근 90년 전인 1922년「제국청소년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청(*Jugendamt*)이 현재 전국단위에 56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실핏줄과 같은 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지금의 독일 청소년정책의 양과 질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가져다

준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47] 한국이 1987년 비로소 독립된 청소년법령인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청소년활동정책에 방점을 두어 엉성하나마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 것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청소년 행정체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는 옛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전부이다.

둘째,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청소년 개인의 발달권과 교육권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사업은 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정책목표로 가지고 있어 우리의 청소년활동정책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독일은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성애자나 이주 배경 청소년들, 뉴미디어 접촉 청소년들과 같은 정책목표 그룹들에게도 다양한 청소년사업들을 통해 정책의 중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소수의 정책 목표그룹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통계에서 보듯이 독일이 시설이나 상근 지도인력, 사업들의 주제, 참여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양적, 질적 수준이 한국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에서도 정치논리가 청소년정책에 개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정자들의 청소년정책을 바라보는 안목과 신념, 의지에 대한 차이가 정책내용의 차이로 결과지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한국의 교육이 사경을 헤매고, 그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사선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부가 보다 깊은 수준의 사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정책수단은 크게 인적수단과 물적수단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인적수단에 있어서는 한국이 독일과는 달리 청소년학을 전공으로 하여 전문인력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수단에 있어서는 크게 뒤지고 있어 한국 정부의 청소년정책 특히,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지원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참고로, 2012년 독일 청소년활동정책의 한 단위사업인 독일-프랑스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사업을 위한 예산이 약 315억이었고, 2012년 대한민국 정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의 정부회계가 약 474억이었으며, 청소년육성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총 청소년정책 예산은 1,470억이었다.

---

47) 독일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전쟁고아나 빈곤아동 등의 취약한 아동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미 1919년에 도시와 농촌의 전국에 「청소년청」의 행정체계를 갖출 것을 결의한 것을 알 수 있다(Gries & Ringler, 2005: 25).

참고문헌

길은배·이미리·문성호(2005). 청소년지도사 근로실태 및 전문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호(2012).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관한 고찰.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세미나자료집 12-S19, 1~2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민희(2011).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운동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 청소년운동을 통한 21세기 한국사회 변혁의 가능성 탐색, 청소년학연구, 18(4), 349~382.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이민희(1995). 과학화 사회에서의 도야(*Bildung*)의 교육적 의미. 철학교육연구, 11(24), 91~99. 서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이종원(1990).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육성, 수련, 활동, 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2012년 청소년 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세미나자료집 12-S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chwendtke, A.(Hrsg.)(1980). Sozialberufliches Bildungswesen. in *Wörterbuch der Sozialarbeit und Sozialpädagogik.* pp. 279 ~ 280 Heidelberg: Quelle & Meyer.

Arbeitsgemeinschaft für Jugendhilfe(Hg.)(2004). *"leben lernen" – Veranstaltungskanlender 12. Deutscher Jugendhilfetag 2004.* Meckenheim: DCM GmbH & Co. KG.

Blankertz, H., Derbolav, J., Kell, A., & Kutscha, G.(1992). Jugendarbeit. in *Enzyklopädie Erziehungswissenschaft. Band 9: Sekundarstufe II – Jugendbildung zwischen Schule und Beruf. Teil 2: Lexion, pp. 316 ~ 318.* Stuttgart: Klett-Cotta.

Bundesministerium für Bidung und Forschung(2012). *Bildung in Deutschland 2012.* Bielefeld: W. Bertelsmann Verla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07). *Kinder- und Jugendhilfe. Achtes Buch Sozialgesetzesbuch.* Berlin: DruckVogt GmbH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3). *14. Kinder- und Jugendbericht. Bericht uber die Lebenssituation junger Menschen und die Leistung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Paderborn: Bonifatius GmbH,

Deinet, U. & Sturzenhecker, B.(Hg.)(2013[4]). *Handbuch offene Kinder- und Jugendarbeit.* Wiesbaden: VS Springer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

DTV(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Gries, J. & Ringler, D.(2005). *Jugendamt und Jugend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Pluto, L., Gragert, N., van Santen, E., Seckinger, M.(2007). *Kinder- und Jugendhilfe im Wandel. Eine empirische Strukturanalyse.* München: Deutsches Jugendinstitut(DJI)

Pothmann, J. (2010): Wo bleibt die Kinder- und Jugendarbeit? Zwischen realem Krisenszenario und statistischen Ungereimtheiten. In: *KomDat Jugendhilfe*, 13, 3, p. 6~7

Statistisches Bundesamt(2012). *Statistisches Jahrbuch 2012. Deutschland und Internationales.*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2012).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 Ausgaben und Einnahmen.*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 (2012).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 Einrichtungen und tätige Personen(ohne Tageseinrichtungen für Kinder), 31.12.2010.*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2010). *Statistisches Jahrbuch 2010.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mit ≫Internationalen Übersichten≪.*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Bundesamt(2009). *Statistisches Jahrbuch 2009.* Wiesbaden: Statistisches Bundesamt

Thomas, A./Chang, C./Abt, H. (2007): *Erlebnisse, die verändern. Langzeitwirkungen der Teilnahme an internationalen Jugendbegegnungen.* Göttingen.

2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

신 선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

신 선 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프랑스의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가 주관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은 대중교육(education populaire)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20세기 프랑스의 대중교육은 사회적 기독교주의, 비종교적 운동, 노동자 운동 등 세 가지 큰 흐름 속에서 발전했다[48]. 대중교육 운동은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위상을 차지하면서 개인의 발전 의지와 역량이 전 생애에 걸쳐있음을 인정하고, 학구적인 문화보다 소위 대중적 문화(노동자 문화, 농민문화, 변두리문화 등)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청소년활동과 대중교육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많은 청소년지도자를 고용하고 있는 3차 산업의 한 부문이고, 대중교육은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운동가들이 추진하는 사회운동"이라는 것이고, 둘째 "청소년활동은 사회복지의 한 분야가 되면서 시설관리, 동반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기구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며, 재원제공자,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계획에 반대되는 정치적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49].

요즈음에는 대중교육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육과 청소년활동을 위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화적 활력충전을 제공하는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대중교육기관이고,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명칭도 "스포츠, 청소년, 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로 청소년정책만이 아니라, 스포츠, 대중교육

48)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대중교육(education populaire)" (http://fr.wikipedia.org/wiki/%C3%89ducation_populaire).
49)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대중교육(education populaire)" (http://fr.wikipedia.org/wiki/%C3%89ducation_populaire).

및 단체활동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체험활동은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의 관할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교육부, 지역평등-주거-도시부, 환경-지속가능-에너지부, 문화-통신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경우 진로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평등-주거-도시부는 지역균등발전, 낙후지역 개발,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체험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2. 청소년활동의 개념

프랑스에서 "청소년활동"에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마시옹(animation)"이라고 하는데 활력충전 혹은 생기충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분야에 따라 "아니마시옹" 이란 용어 뒤에 "쏘시오큐튜렐(animation socioculturelle)" 혹은 "드 나뛰르(animation de nature)"와 같은 형용사가 따라붙기도 한다. 전자를 직역하면 "사회문화적 활력충전"이고, 후자는 "자연 속에서의 활력충전"이라는 뜻이다. "아니마시옹"이라는 용어는 청소년활동에만 한정해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성인이나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아니마시옹"은 "일정한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의 개인적 발전 혹은 사회적 발전을 위해 동반자 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정의되며, 1)문화, 축제행사 분야, 2)예방(건강, 일탈예방) 및 취업분야, 3)바캉스 및 여가 분야, 4)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50]. "아니마시옹"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참여자들 사이에 개인적 혹은 사회적 발전에 유익한 관계들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다[51]. 즉, "아니마시옹"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참여자의 개인적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 지역사회에 유익한 청소년문화 확산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아니마시옹"에 해당되는 활동이다. 여기에서는 "아니마시옹"을 "청소년활동"이라고 번역하고자 한다.

위에서 청소년활동 분야를 4개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예방 및 취업분야의 청소년활동은 도시수준 혹은 도시 내 일정 지역 수준의 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 분야의 청소년지도자는 주민들이

50)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사회문화적 활력충전(animation socioculturelle). (http://fr.wikipedia.org/wiki/Animation_socioculturelle).
51)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사회문화적 활력충전(animation socioculturelle). (http://fr.wikipedia.org/wiki/Animation_socioculturelle).

스스로 만든 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며,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예방 및 취업분야의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일하는 청소년의 집(foyer de jeunes travailleurs) 등이 있다[52].

바캉스 및 여가분야 청소년활동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한정되며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청소년활동의 고유한 특징은 참여자들이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 주로 산과 바다로 나아가 다양한 발견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프랑스 학교의 연간 방학일 수는 125일인데, 바캉스 및 여가분야 청소년활동의 주요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기업의회[53]이다[54].

INSEE의 "청소년 및 여가활동 지도자(animateurs socioculturels et de loisirs)"에 관한 정의에서도, 청소년활동에 관해 위와 유사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Koebel(2002)에 따르면 INSEE[55]는 1982년에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직업분류에 "청소년 및 여가활동 지도자(animateurs socioculturels et de loisirs)"를 새로운 직업군으로 신설하면서, 이 직업을 "특정한 인구집단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자 하거나, 그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거나,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한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3. 청소년활동정책의 현황

3.1 법제 현황

가. 청소년 관련 법

부모에서 사촌 이내의 친척, 혹은 법적 후견인의 가정 이외의 장소에 미성년자(18세 미만)를 수용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보호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 및 가족법(Code

52)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사회문화적 활력충전(animation socioculturelle). (http://fr.wikipedia.org/wiki/Animation_socioculturelle).
53) 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는 50인 이상 프랑스기업에 설치된 직원대표기구인데, 직원복지 차원에서 청소년 바캉스 및 여가활동을 조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54)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unes.gouv.fr/interministeriel/activites/vacances/article/accueils-collectifs-de-mineurs-acm.
55)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는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227-1조부터 제227-11조까지이다. 공권력의 보호 범위는 미성년자의 안전, 건강, 정신상태에 관한 정서적, 물리적 조건까지이다[56]. 이 법은 가족, 빈곤층, 소외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으로, 제1권 일반제도, 제2권 다양한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 형태, 제3권 기관이나 서비스기구에 의한 사회복지 및 의료사회복지, 제4권 직업 및 안내활동, 제5권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중등, 고등교육에 관한 법은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으로 제1권은 교육의 일반원칙, 제2권 교육행정, 제3권 학교교육의 조직, 제4권 학교교육기관, 제5권 학교생활, 제6권 고등교육의 조직, 제7권 고등교육기관, 제8권 대학생활, 제9권 교육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학제

프랑스의 학제는 취학전 교육 3년(마지막 1년은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대학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6세이며, 중학교 이후의 입학연령은 유급경험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급제도의 엄격성이 완화되어 유급하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여전히 유급이 가능하다. 중학교 3학년부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직업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의 계열은 일반계(filière générale), 기술계(filière technologique), 직업계(filière professionnelle)로 구분된다. 일반계와 기술계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계는 처음에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년제 고등교육기관 진학 준비를 위해 신설되었으나 요즈음에는 3년제 학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아 원래의 설치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대학입학자격시험(바깔로레아)에 합격하면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2년제 직업교육기관, 일반대학교,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특수분야별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고등교육수준의 2년제 직업교육기관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년 과정의 직업학사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일반대학교의 학위과정은 학사(최소 3년), 석사(최소 2년), 박사(최소 3년)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랑제꼴은 분야마다 소요되는 교육연한이 다른데 보통 최소 2년의 그랑제꼴 입학시험 준비반(주로 명문

56)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unes.gouv.fr/ministere-1001/actions/vacances-et-temps-de-loisirs-1108/accueil-collectif-de-mineurs/article/legislation-et-reglementation-des.

고등학교에 설치됨)을 거쳐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3-4년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3.2 청소년관련 시설 및 인구 현황

가. 청소년관련 시설

1) 청소년 단체활동시설

청소년 단체활동시설은 방학이나 휴일에 단체여행을 떠나는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숙소를 말한다. 이전에는 "바캉스센터 혹은 여가센터(Centre de vacances ou de loisirs)"라고 불렀으나, 2007년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시설(Accueil collectif des mineurs)"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다. 바캉스센터는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자연권 수련시설이고 여가센터는 숙박시설이 없는 생활권 수련시설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수련원이나 청소년 수련관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단체활동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바캉스 및 여가센터연합회(Union franç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UFCV)에 가입한 법인의 수가 574개, 개인의 수가 458명이다. 이 단체는 1개의 중앙조직과 6개의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조직은 18개 광역단치단체 수준의 지소와 52개 기초자치단체 이하 수준의 분소를 관할한다[57]. 참고로 UFCV의 회원은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의 유일한 고용주 단체인 CNEA(Conseil National des Employeurs Associatif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CNEA에 가입한 기구의 수는 4,000개 이상이다[58]. 바캉스센터 혹은 여가센터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59]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123sejours.com"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수는 500개 이상이고,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연평균 1만개 이상이다[60].

57) UFCV 인터넷홈페이지(http://www.ufcv.asso.fr/Accueil/Quisommesnous/Organisation.aspx)
58) CNEA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nea-syn.org/)
59) www.gincy.com, www.123sejours.com, www.salutleskids.com, www.partir-en-classe.org, www.telligo.fr
60) www.123sejours.com

뻬이 드 라 르와르(pays-de-la-loire) 지역의 바캉스센터(www.telligo.fr)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첨부함, 최종 편집 시 삭제하시기 바람(이하 동일).

청소년 단체활동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 및 가족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227조를 준수해야 한다. 동 시설의 기획자(organisateur)는 개인은 물론 법인(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도 될 수 있다. 기획자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교육목적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력(운영자, 청소년지도자)을 채용한다[61]. 청소년 단체활동시설의 운영자(directeur)는 1)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물리적, 정서적 안정, 2)기획자, 가족, 협력기관 등과의 의사소통, 3)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 및 계속교육, 4)청소년 지도계획 작성 등을 담당한다[62]. 청소년 단체활동시설의 운영자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전문대 졸업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자격들이다.

운영자의 지시 하에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자들(animateurs)이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단체활동의 경우, 청소년지도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또래의 청년층이 많다. 이들의 역할은 각자 자기가 맡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지키고, 학생들이 계획했던 활동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단체활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다. 청소년지도자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청소년지도자로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의 운영자 및 청소년지도자 배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61)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참조. http://fr.wikipedia.org/wiki/Centre_de_vacances_ou_de_loisirs
62)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참조. http://fr.wikipedia.org/wiki/Centre_de_vacances_ou_de_loisirs

청소년지도자와 아이들(jeunesgonfrevillais.fr)

2)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 MJC)은 주로 도시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문화의 집의 역사는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06년에 파리의 한 대학생(Catherine Descroix)이 "우리 집(Chez nous)"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청소년 방학캠프, 토론회, 도서관, 합창단을 조직한 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초이다[63]. 청소년-문화의 집 수는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1950년에 118개소에 불과했으나 1960년에 262개, 1968년에 약 1,200개로 증가하였다. 1965년에 20주년을 맞이했던 청소년-문화의 집 연합회는 그로부터 10년 후(1975년)까지 도시지역에 3,500개소, 농촌지역에 9,300개소, 총 13,000 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64]. 그러나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연합회에 가입한 청소년-문화의 집은 1,460개소이며, 이사진에 포함된 인사들의 수는 5,600명, 행정직 23,500명, 자원봉사자 32,000명이며, 청소년 등록자 수는 630,000명, 약 1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65].

63) 청소년-문화의 집 연합회 60주년 기념 홈페이지 : www.60ansdesmjc.fr
64) 청소년-문화의 집 연합회 60주년 기념 홈페이지 : www.60ansdesmjc.fr
65) 청소년-문화의 집 연합회 60주년 기념 홈페이지 : www.60ansdesmjc.fr

Carpentras시 청소년-문화의 집
http://www.carpentras.fr/jeunesse/activites-loisirs/maison-des-jeunes-et-de-la-culture-1233.html

3) 청소년정보센터

청소년정보문서센타(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CIDJ)는 1969년에 문을 연 유럽 최대의 청소년종합정보센타이다. 청소년정보문서센타는 전국의 약 1,500여곳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정보센타들과 함께 청소년정보망을 구성하고 있다.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정보문서센타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청소년관련 정보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청소년관련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방청소년정보센타(Centres Régionaux Information Jeunesse, CRIJ)라고 부른다. 프랑스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27개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드프랑스만 지방청소년정보센타가 없고, 파리에 소재한 청소년정보문서센타가 일드프랑스의 지방청소년정보센타 기능을 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지방에는 대신 청소년정보센터(Centre Information Jeunesse, CIJ)가 세 개 설치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지역에는 청소년정보사무소(Bureau Information Jeunesse, BIJ)가 235개, 청소년정보지점(Points Information Jeunesse, PIJ)이 1,248개가 설치되어 있다[66].

청소년정보망이 제공하는 정보는 교육훈련, 진로, 직업에 관한 정보 이외에 여가, 의료, 주거, 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청소년정보문서센터(CIDJ) 2011년 사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정보망은 약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5백만명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정보망에 접속하는 건수는 연간 1,500만건 정도이다. 청소년정보망의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67].

66) CIDJ(2012). *Rapport d'activité 2011*. p. 3.
67) CIDJ(2012). *Rapport d'activité 2011*. p. 3.

CIDJ 입구

CIDJ 내부 공간

4) 국립교육·직업정보원(ONISEP) 및 진로정보센타(CIO)

국립교육·직업정보원(Office national d' information sur les enseignements et les professions, ONISEP)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교육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ONISEP의 진로정보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다양한 형태의 자료집, 매뉴얼 등으로 가공되어 전국의 진로정보센타(Centres d' information et d' orientation, CIO), 각급학교의 도서관(Centre de documentation et d' information, CDI), 기타 관련 정보제공기관, 서점 등에 공급된다. ONISEP에서 발간된 자료들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도 있다. 자료의 형태도 다양할 뿐 아니라 대상층도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용, 학부모용, 전문가용 등 다양하다. ONISEP는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방문과 상담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누구나 인터넷망을 통하여 ONISEP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와 직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진로정보센타(CIO)는 지방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전국에 걸쳐 539개가 있다. 이 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학부모와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방문자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에 응한다. 2)학교공부, 직업교육, 자격제도, 직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적성, 취미, 능력을 파악해주며,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진로계획서 작성 등을 도와준다. 4)지역수준에서의 교육제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발달을 분석하고 해당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한다.

진로정보센터에는 교육과 직업에 관한 자료실이 있어 방문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ONISEP 자료 포함)를 열람할 수 있다. 진로정보센타의 인적자원은 센타장, 진로상담가들, 행정직원 등 세 그룹으로 구성된다. 진로정보센타는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임무를 맡고 있는 센타는 4개소이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회원국에서 프랑스에 관한 질문을 보내올 경우 그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준다. 서로 교환하는 정보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실습, 장학금, 언어연수 등에 관련되어 있다.

Centre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de Valence(www.ac-grenoble.fr)

나. 청소년 인구현황

1) 성별-연령층별 청소년인구 분포

프랑스의 청소년인구는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2,012만 7천명이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이다. 남자 청소년 인구가 여자 청소년 인구보다 41만명 정도 더 많으며,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0.6%p 더 높다.

<표 1> 성별-연령층별 청소년인구 분포(2012. 1)

단위 : 명

연령층	남자	여자	전체
0-4세	2,071,787	1,982,896	4,054,683
5-9세	2,045,399	1,954,120	3,999,519
10-14세	2,072,507	1,971,669	4,044,176
15-19세	2,011,249	1,925,640	3,936,889
20-24세	2,067,870	2,023,912	4,091,782
합계	10,268,812	9,858,237	20,127,049
전체 인구대비 비중	15.7%	15.1%	30.8%

자료 :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2012). *Les chiffres-clés de la jeunesse*.

2) 초-중등 학교 수 및 학생 수

프랑스 초등학교의 수는 2005-2006학년도에 38,385개교였는데, 2010-2011학년도에는 37,609개교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05-2006학년도에 3,962천명에서 2010-2011학년도에 4,080,800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 수와 유치원 학생 수는 제외했다.

<표 2> 프랑스 초등학교 수 및 초등학교 학생 수

구 분	2005-2006 학년도	2006-2007 학년도	2007-2008 학년도	2008-2009 학년도	2009-2010 학년도	2010-2011 학년도
초등학교 수(개)	38,385	38,257	38,116	37,933	37,783	37,609
학생 수(천명)	3,962.0	4,016.9	4,047.3	4,062.2	4,070.5	4,080.8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2012.

프랑스 중-고등학교 수는 1990-1991학년도에 11,670개교였고, 2010-2011학년도에는 11,375개교로 약간 감소했다. 중-고등학교 학생도 같은 기간 동안 5,709,100명에서 5,353,200명으로 감소했다.

<표 3> 프랑스 중-고등학교 수 및 중-고등학생 수

구 분	1990-1991 학년도	1995-1996 학년도	2000-2001 학년도	2005-2006 학년도	2009-2010 학년도	2010-2011 학년도
중_고등학교 수(개)	11,670	11,529	11,386	11,423	11,377	11,375
학생수(천명)	5,709.1	5,758.8	5,614.4	5,485.4	5,331.7	5,353.2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2012.

3.3 지도인력 양성 현황

가. 청소년지도자(animateur)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가 발급하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자격은 전문학위(diplômes professionnels)와 비전문학위(diplômes non professionnels)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청소년지도자를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이고, 후자는 학생이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휴가(방학)를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이다.

청소년 활동에 관한 전문학위는 직업고등학교에서 2년 과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격(BAPAAT),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자격(BPJEPS), 대학 2년 과정의 자격(DUT carrières sociales, DEUST métiers de l'animation, DEJEPS), 대학 학사졸업 수준의 자격(Licences pro métiers de l'animation) 등이 있다. 비전문학위로는 BAFA와 BAFD[68]가 있다. BAFA는 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취득하며, BAFD는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이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단체활동시설의 운영자(directeur)를 할 수 있는 자격이다. BAFA/BAFD를 획득하여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때에도 일종의 고용계약서를 쓰는데, 이 고용계약서는 "교육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éducatif)" 라고 하고 고용기간은 연간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학위는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획득하며, 비전문자격은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가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대표적인 BAFA/BAFD 교육훈련기관으로 바캉스 및 여가센터연합회(Union franç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UFCV)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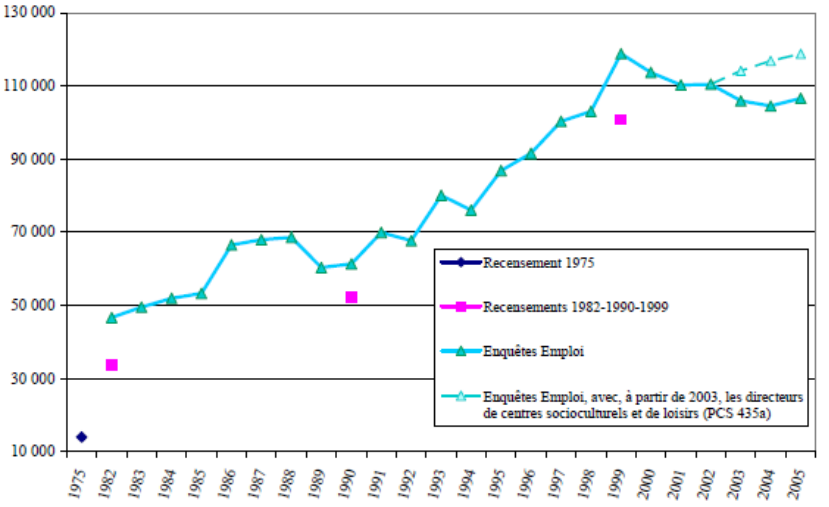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가 발행하는 통계정기간행물인 STAT-INFO[69]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프랑스 정부가 발급한 청소년활동 관련 학위는 약 58만개이며, 매년 6만개에서 6만 5천개의 학위가 발급되었다. 그 중에서 비전문학위에 해당되는 BAFA가 49만개, BAFD가 4만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직업고등학교 2년 과정 수준의 자격은 12,800개,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자격은 17,800개 정도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학위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모두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청소년지도자 수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얻기 어렵다. 청소년지도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청소년지도자를 직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청소년활동 지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Lebon(2007)에 따르면 다양한 행정통계나 우리나라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해당되는 프랑스의 공식통계조사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추정에 활용된 자료나 청소년지도자의 조작적 정의방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수에 큰 차이가 있다. Lebon이 프랑스 INSEE의 인구조사(Recensement)와 고용조사(Enqutês Emploi)를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자 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두 조사에서 추정된 청소년지도자 수의 증가 추세는 거의 같은데, 인구조사(1975, 1982, 1990, 1999년)에서 추정된

68)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인터넷홈페이지 BAFA-BAFD 가이드 (http://www.jeunes.gouv.fr/ministere-1001/actions/formations-et-metiers-de-l-1142/bafa-baf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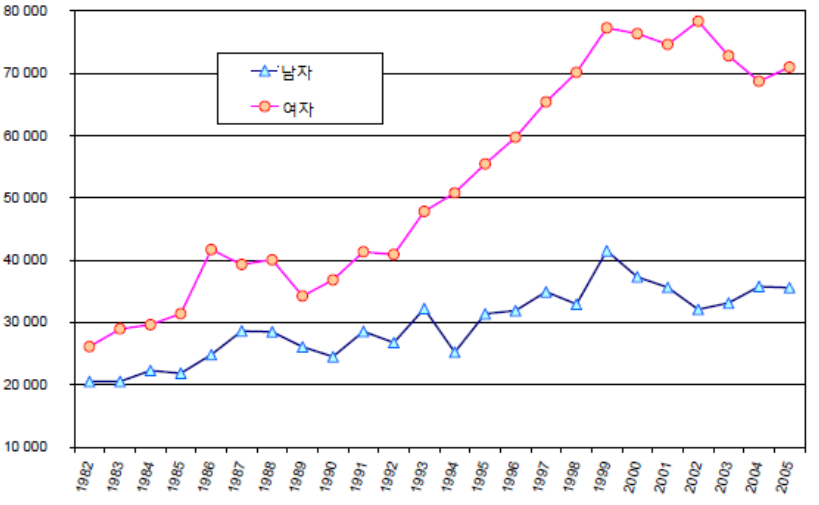
69) Le Rohellec, A. & G. Truchot(2005). 580 000 diplômes de l' 'animation ont été délivrés depuis 1995.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STAT-INFO*. n° 05-02. 2005년 5월.

청소년지도자 수가 고용조사에서 추정된 수보다 적다. 2005년 고용조사에서 추정된 청소년지도자 수는 약 12만명 정도이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여성 청소년지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자료 : Lebon(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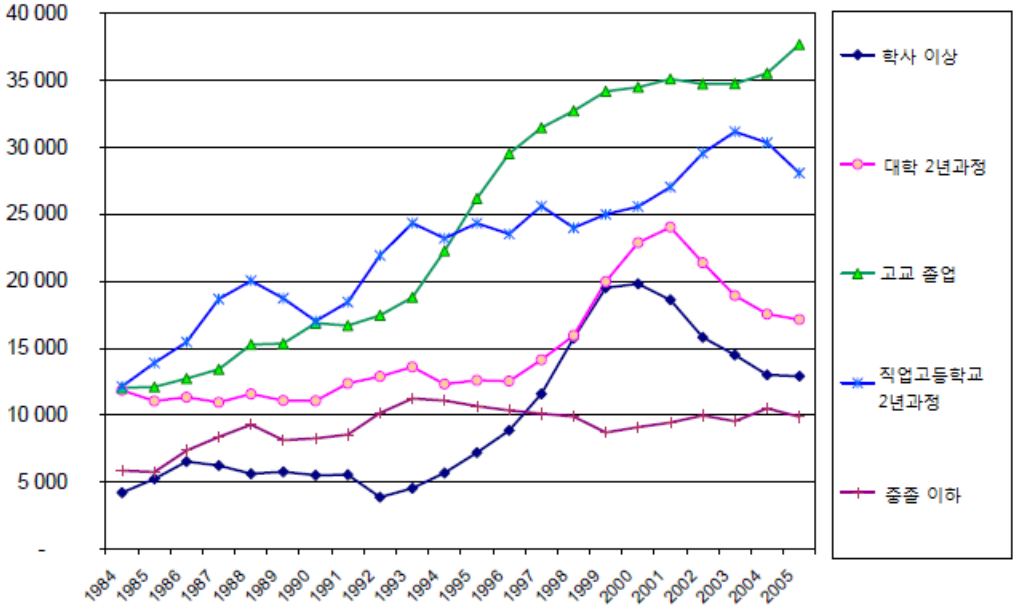
[그림 1] 프랑스의 청소년지도자 추정규모 추이(1975-2005)



자료 : Lebon(2007).

[그림 2] 프랑스의 성별 청소년지도자 수 추정규모 추이(1982-2005)

프랑스 청소년지도자의 교육수준은 주로 고등학교 졸업 혹은 직업고등학교 2년과정의 자격 취득수준이며, 대학 2년과정 이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2005년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는 약 1만명, 직업고등학교 2년과정 수준의 자격 취득자는 약 2만 8천명, 고등학교 졸업은 3만 7천명, 대학 2년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1만 7천명,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만 3천명 정도이다.



자료 : Lebon(2007).

[그림 3] 프랑스의 교육수준별 청소년지도자 수 추정규모 추이(1984-2005)

나. 진로상담사(conseiller d'orientation-psychologue)

진로상담사는 지역교육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진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며, 주요 역할은 1)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정보 제공, 2)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 관찰에 참여, 3)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조건 마련, 4) 교육 및 직업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5)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채 초기교육을 마친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위한 진로정보센터 활동에 참여 등이다[70].

70) 프랑스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학교교육분야 직업(Les métiers de l'éducation nationale)" 참조. http://www.education.gouv.fr/cid1067/conseiller-d-orientation-psychologue-c.o.p..html

진로상담사는 초·중등학교 교사양성과 유사하며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채시험을 통해 임용한다. 진로상담사 공채시험에 응시하려면 심리학 전공의 학사 이상 학위가 있어야 한다. 공채시험은 1차 필기시험(논술, 주어진 자료에 대한 비평, 자료 혹은 질문지 분석 등)과 2차 구두시험(교육훈련에 관한 시험과 응시자의 교육경험 및 직업경험에 대한 면접)으로 나뉘어진다. 공채시험 합격자들은 "실습생 진로상담사" 자격으로 진로상담사 양성센터(CefoCOP[71])에서 2년간 석사과정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임용된다. 실습생 진로상담사 교육과정에는 두 가지 유형의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진로정보센터에서 실시되는 12-14주 간의 실습이고, 그 중 4주 이상은 해당 진로정보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학교에서 실습이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의 실습은 기업체 실습으로 6-8주간 실시된다.

<표 4> 프랑스 교육부 진로상담사 공채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응시자	1,900	2,227	2,207	1,637	1,354	1,082	1,592	1,815
합격자	135	130	55	50	50	50	65	65

주) 교육공무원 재직자 대상 내부공채 및 외부 신규공채 합계
자료 :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2012.

프랑스 중등학교를 지원하는 진로상담사 수는 정규직이 3,702명이고 임시직이 247명이다. 정규직 중 82.2%와 임시직 중 90.3%가 여성이다(프랑스 교육부, 2012). 진로상담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진로정보센터가 전국에 600개 정도이므로 센터당 6.6명의 진로상담가가 배치되어 있는 셈이다. 진로상담사들은 진로정보센터에서 지역주민(학생, 학부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역 내 각급학교로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대졸 청년층 실업난이 심화되어 지역 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3.4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가. 바캉스센터 및 여가센터 청소년단체활동

바캉스센터 및 여가센터(공식명칭은 청소년단체활동시설로 통일됨)는 방학기간과 방과후 시간에 다양한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과 바다로 나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71) Centre de formation de conseillers d'orientation-psychologiques.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하다. 수영, 돗을 단 배를 이용한 스포츠, 등산, 서커스와 같은 신체활동, 연극, 고고학탐사,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활동도 바캉스센터나 여가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수많은 바캉스센터 중에서 남부 프랑스 몽 리에에 있는 “아미티에 세베놀 바캉스센타(Centre de vacance Amitié Cévenol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1)돗단배(뗏목배, 윈드서핑), 2)아크로브랑쉬(나무와 나무 사이를 안전장비를 갖추고 줄타기하는 것), 3)승마, 4)자연탐방(지중해 환경, 석호, 해변, 황무지, 숲, 낙시터, 조개양식장, 조류 관찰 등), 5)각종 놀이가 있다.

아크로브랑쉬		네이버 블로그 http://simibae.blog.me/60193734230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는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 프로그램을 1)6-12세(주로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학동안 이루어지는 숙박 프로그램, 2)13-18세(주로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이루어지는 숙박 프로그램, 3)7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스카우트 프로그램(캠프, 주말활동, 방학기간 활동 등), 4)3-17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센터 프로그램(단기방학, 여름방학, 방과 후에 집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5)14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클럽” 등 청소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다[72].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리스트는 없으니 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통합-주민보호실”, 주민센터, 청소년정보센터 등에 문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73].

2010-2011 학년도의 경우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총 횟수는 68,700회 정도이고, 참여한 청소년 수는 1,827,563명이다. 프로그램 기간이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각 프로그램의 참여일 수에 참여자 수를 곱하여 얻은 참여일 수 합계는 16,077,162일이다. 전체 프로그램 총 횟수(68,700회) 중에서, 숙박이 없는 생활권 프로그램이 35.8%, 숙박을 포함한 자연권 프로그램이 64.2%를 차지한다. 참여한 청소년 수를 기준으로 하면 숙박이 없는 생활권 프로그램이 23.0%,

72)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unes.gouv.fr/interministeriel/activites/vacances/article/accueils-collectifs-de-mineurs-acm)
73)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unes.gouv.fr/interministeriel/activites/vacances/article/accueils-collectifs-de-mineurs-acm)

숙박을 포함한 자연권 프로그램이 77.0%를 차지한다. 숙박이 없는 생활권 프로그램의 1회당 참여일 수는 5일을 초과하지 않고, 숙박을 포함한 프로그램은 5일 이상 짜리 프로그램이므로 참여일 수를 기준으로 하면, 숙박이 없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8.8%이고 숙박을 포함한 자연권 프로그램의 비중이 91.2%를 차지한다.

<표 5> 바캉스센터 및 여가센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참여자 수

단위 : 회, 명, 일

프로그램 구분	주요 통계지표	2007-2008 학년도	2008-2009 학년도	2009-2010 학년도	2010-2011 학년도
숙박 없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횟수	17,928	20,285	23,527	24,615
	참여한 청소년 수	296,424	337,677	396,301	419,915
	참여일 수(합계)	904,242	1,034,968	1,338,485	1,421,021
숙박 포함 프로그램	프로그램 횟수	47,474	46,552	44,457	44,088
	참여한 청소년 수	1,478,990	1,470,992	1,432,953	1,407,648
	참여일 수(합계)	15,845,054	15,422,495	15,020,081	14,656,141
전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횟수	65,402	66,837	67,984	68,703
	참여한 청소년 수	1,775,414	1,808,669	1,829,254	1,827,563
	참여일 수(합계)	16,749,296	16,457,463	16,358,566	16,077,162

주) 이 자료는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된 것임.
자료 : Foirien(2012).

나. 개방학교(École ouverte)

개방학교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방학기간, 수요일[74], 주말 등에 바캉스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는 학생들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교육활동과 사회-문화-스포츠-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방학교의 운영목적은 참여하는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 신뢰감 형성,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좋은 관계 형성 등이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75].

개방학교 운영 현황에 관한 프랑스 교육부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76]. 2012년에 개방학교에 참여하는

74) 프랑스 학교는 토요일대신 수요일에 쉬는 학교들이 있다. 일주일 내내 수업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리듬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토요일에 쉬는 학교도 있다. 학생들의 학습리듬과 부모의 일가정양립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진 적도 있으나, 전국에 획일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75) 프랑스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ducation.gouv.fr/cid142/ecole-ouverte.html)

76) 프랑스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ducation.gouv.fr/cid142/ecole-ouverte.html)

학교 수는 706개교이며, 그 중 71%의 학교가 교육우선지역(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과 유사함)의 학교들이다. 2011년 실적에 따르면 참여 학교의 92%가 중학교이고, 4%는 일반계 및 기술계 고등학교, 나머지 4%는 직업계 고등학교이다. 개방학교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1년에 127,400명이었고, 2012년에는 165,000명이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 기업체 견학활동(Séquence d'observation en milieu professionnel)

프랑스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조치로 중학교 4학년(졸업반) 학생들에게 기업체 견학활동(현장실습)을 의무화하였다. 기업체 견학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기술, 경제, 직업에 관련된 환경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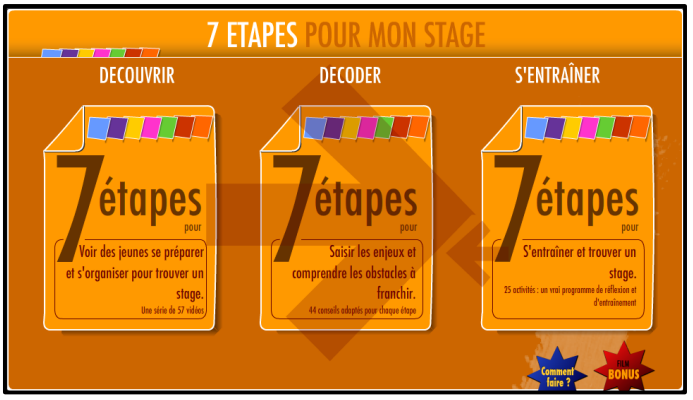
프랑스가 2000년대 중반에 진로교육을 크게 강화한 것은, 오랫동안 추구해 왔으나 달성하지 못한 정책목표에 다시 도전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실패와 중도탈락이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선택 권한을 강화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유급률을 줄이면서,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대학입학자격시험 응시자(고3)가 해당 연령층의 30% 정도에 불과했고 합격자는 30%에 미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70%정도가 대학입학자격시험에 도달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의 목표는 이를 80%까지 끌어올리고 대졸 이상자 비율을 50%까지 제고하는 것인데, 목표달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프랑스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길, 학업을 마치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길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진급과 진학진로를 결정하는데 교사의 권한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 후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이 더 커졌고 그에 따라 학업실패와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0년대부터 진로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중반에 다시 한 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로교육을 크게 강화하였다.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현장실습(stage)은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스스로 실습처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나 관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77]. 프랑스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에 따라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기업체 실습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입각하여 중학교 4학년 학생들의 기업체 실습도 14세 이상의 학생들에게만 적용한다. 14세 미만인 학생들은 가족이나 튜터만으로

77) 프랑스 교육가 운영하는 Eduscol 홈페이지 참조.
http://eduscol.education.fr/pid23841-cid46879/sequence-d-observation-classes-de-troisieme.html

구성된 사업체, 혹은 민간사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실습하는 것이 가능하다[78].

프랑스 경제-재정-노동-고용부(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du Travail et de l'Emploi)는 학생들이 기업체 현장실습을 준비하고, 실습처 찾기를 도와주기 위해 "실습을 찾기 위한 7단계(7 étapes pour trouver un stag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1)실습 준비를 위한 7단계(동영상 자료 57개), 2) 실습의 목적 이해와 장애요인 해결 7단계(동영상 자료 44개), 3) 스스로 익힐 것과 실습처 찾기 7단계(동영상 자료 25개)에 대하여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자료들은 실습에 참여했던 중학생들의 간략한 인터뷰이다.



자료 : http://7etapespourtrouverunstage.com/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한 여자 중학생의 실습 소감문을 발견했는데,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에미(Noémie)는 14살 된 중학교 4학년 학생으로 Araïs et Makina Corpus라는 지역의 소비자대상 언론출판사에서 4일간 실습을 했다. 이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지역밀착형 소비자 정보제공과 책임있는 소비자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체이다. 월요일 아침, 노에미는 Araïs 팀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직원들에게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했다. 월요일 아침에 조그만 회사의 분위기가 매우 좋고 활기찬 것이 노에미에게는 인상적이었다. 노에미는 팀 회의와 "책임있는 소비자" 편집회의에도 참석하였는데 회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노에미는 스테파니라는 여자 직원이 뉴스레터 작성을 위해 취재하는 것을 동행했다. 즉, 외부에 나가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사진을

78) 프랑스 교육가 운영하는 Eduscol 홈페이지 참조.
http://eduscol.education.fr/pid23841-cid46879/sequence-d-observation-classes-de-troisieme.html

찍었다. 취재가 끝난 후 노에미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뉴스레터 배포과정을 관찰하였다. 노에미는 언젠가 기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위에 소개한 소감문은 노에미가 실습을 했던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79].

라. 청소년의회(Conseil de la Jeunesse)

프랑스는 20여년 전부터 청소년들의 공적 생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1) "청소년의회(Conseil de la Jeunesse)" 제도 도입, 2) 프랑스 하원 경제-사회-환경위원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에 청소년 대표 참여, 3)아동-청소년의회 전국연합(Association nationale des conseils d'enfants ou de jeunes)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80].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 입안자 혹은 집행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의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정치교육에 활용되었던 교수방법에서 유래한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와 "교육"을 결합시킨다는 모토하에 청소년의회를 설치하였고, 1997년 청소년체육부가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청소년들과의 광범위한 대화를 실시하였는데, 이 미팅에서 청소년의회를 전국적으로 설치한다는 안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먼저 전국청소년의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지역별 청소년의회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전국청소년의회는 16세에서 28세의 청소년 약 180명으로 구성되며, 50%는 시·군·구 청소년의회 대표들로, 나머지 50%는 전국단위 청소년 단체의 대표자들이다. 청소년의회에 대표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청소년 단체에는 각종 사회단체, 정치운동단체, 노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의회의 의견수렴 결과는 청소년 정책 건의 형식으로 중앙 및 지방 청소년정책 담당기구에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된다. 또 경우에 따라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토론주제(예를 들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교육대토론회)가 있을 경우 거기에 참여하기도 한다.

아동-청소년의회 전국연합회의 홈페이지[81]는 전국의 의회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 청소년의회(Conseil Parisien de la Jeunesse)는 2013년 6월 8일에 인파가 많은 지하철역, 광장에서 "깜짝 예술 시현활동(performances artistiques insolites)"을 열기로 했다. 장소와 시간은 갸르 뒤 노흐역(Gare du Nord, 14:00), 생 라자르역(Gare Saint Lazare,

79) http://www.consommer-responsable.fr/blogcr/noemie-en-stage-sur-consommer-responsable

80)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http://www.jeunes.gouv.fr/ministere-1001/actions/initiative-et-participation-des/participation-des-jeunes/

81) www.anacej.asso.fr

15:30), 갸르니에 오페라 앞(Opéra Garnier, 16:30), 메닐몽땅 광장(Place de Ménilmontant, 17:30)이다.

프랑스 하원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분야 140명, 사회통합 및 단체생활분야 60명, 환경보호분야 3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회통합 및 단체생활분야 위언 60명 중에 대학생 및 청소년 대표가 4명 포함된다. 그 중 2명은 전국의 대표적인 학생회 대표로 고등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고, 나머지 2명은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장관이 청소년 대표 2명을 지정한다[82].

마. 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Programme envie d'agir)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agir)"는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가 청소년의 주도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은 지역활성화, 시민의식, 국제 및 지역연대, 문화적 창조활동, 지속가능한 발전, 창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로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 실현에 사용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지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청소년의 자립, 책임감 발달 및 사회생활 참여, 2)청소년의 재능과 창조성 표현, 3)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취업에 기여하는 것이다[83]. "행동하려는 욕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르면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 청소년은 먼저 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에 "행동하려는 욕구" 담당자를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 프로그램에 응모하는데 적합한지 면담한다.

둘째, 아이디어가 프로그램에 응모하는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응모서류를 작성한다. 응모서류는 1)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2) 프로젝트를 지원해 줄 파트너 구하기, 3)프로젝트 실현에 예상되는 예산 세우기, 4)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증(특히 국제연대 프로젝트, 문화창조활동, 창업 등의 경우)을 포함한다. 응모서류를 작성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행동하려는 욕구"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자신의 계획을 기초자치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 앞에서 발표한다.

---

82) 프랑스어 위키페디아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참조.
http://fr.wikipedia.org/wiki/Conseil_%C3%A9conomique,_social_et_environnemental

83) "행동하려는 욕구"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enviedagir.jeunes.gouv.fr/le-programme-envie-d-agir.html

심사위원단은 연간 수 차례 심사를 하며,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심사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각 지역별 심사일정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된다.

넷째, 장학금을 받으면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행동하려는 욕구" 담당자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원을 약속한 파트너들이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실현을 도와준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주는 기간은 1년("청소년 프로젝트"의 경우) 혹은 2년("도전 청소년" 프로젝트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에 "행동하려는 욕구" 담당자한테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행동하려는 욕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따르면, "2010년에 '행동하려는 욕구'에 참여하기 위해 안내를 받았던 청소년은 6,000여명이었고, 그 중 3,500명이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계획서 제출단계까지는 교육적, 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제출된 계획서의 60%는 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84].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에서 장학금을 받은 프로젝트의 사례로, 멘느와 루아르(Maine et Loire)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 자치단체는 2011년 1차 심사(2011년 5월 27일) 결과 17개 프로젝트(팀원 포함 참여자 수 90명)에 11,190유로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는데, 그 중 일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멘느와 루아르(Maine et Loire)의 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 장학금 수여자 사례

이름	연령	팀원 수	프로젝트 제목	프로젝트 내용	장학금 (유로)
제레미	22	8	Turpin의 빛과 소리	Turpin 마을에 소속감과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빛과 소리〉 공연 창작	800
마띨드	17	2	패션쇼	Plessis-Grammoire 마을의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패션쇼 조직	600
끌레린느	22	4	Dusty Blues	Dusty Blues라고 하는 음악그룹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800
티볼뜨	19	6	Juv's/Art	시골지역에 다분야의 이벤트 개최 (음악, 실용 미술, 스포츠, 놀이, 서커스 등)	400
아브델자릴	24	-	섬유분야사업	어린이 의류분야 판매 사업체 창업	400

주) 성명에서 성은 생략하였음.

자료 : http://www.ddjs-maine-et-loire.jeunesse-sports.gouv.fr/dossiers/dossiers.php?id_dossier=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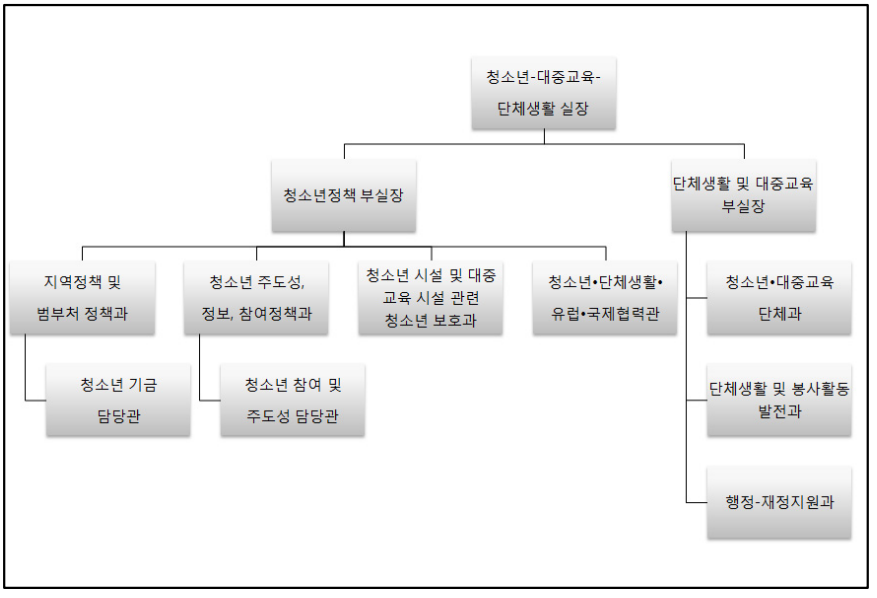
84) "행동하려는 욕구"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http://www.enviedagir.jeunes.gouv.fr/le-programme-envie-d-agir.html

4.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4.1. 중앙부처

프랑스의 청소년업무 주무부처는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이다. 이 부처는 1)스포츠실(Direction des Sports), 2)재정-정보-부동산-서비스업무 담당실(Direction financières, informatiques, immobilières et des services), 3)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실(Direction de la jeunesse, de l' 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4)인적자원실(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 4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실의 라인조직은 다음과 같다. 실장 하에 청소년정책 부실장과 단체생활 및 대중교육 부실장이 있고, 청소년정책부실장 하에 1)지역정책 및 범부처정책과, 2)청소년 주도성, 정보, 참여정책과, 3)청소년시설 및 대중교육시설 관련 청소년보호과, 4)청소년, 단체생활, 유럽 및 국제 협력관, 청소년기금 담당관, 청소년참여 및 주도성 담당관이 있고, 단체생활 및 대중교육 부실장 하에 1)청소년, 대중교육 단체과, 2)단체생활 및 봉사활동 발전과, 3)행정-재정 지원과가 있다.



자료 :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eunesse-sports.gouv.fr/ministere/OrganigrammeAC.pdf

[그림 4] 프랑스의 청소년 중앙행정체계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 이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 부처들은 2013년 2월에 범부처청소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가 발표한 "47대 청소년 우선정책" 수립에 참여한 부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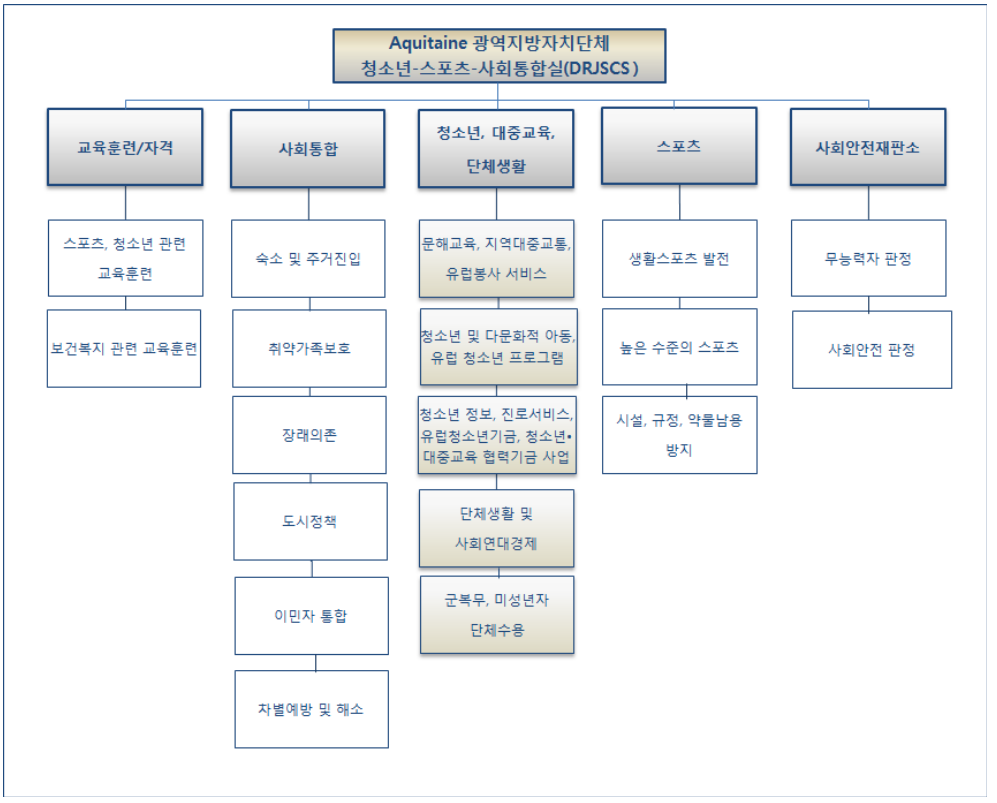
- 외무부(Ministere des Affaires etrangeres)
- 교육부-교육성공 담당 차관(Ministere de l' Education nationale-Ministere delegue a la Reussite educative)
- 법무부(Ministere de la Justice)
- 사회복지 및 보건부 가족 담당 차관, 장애인 및 소외 담당 차관(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et de la Sante-Ministere delegue a la Famille, Ministere delegue aux Personnes handicapees et a la Lutte contre l' exclusion)
- 지역평등 및 주택부, 도시 담당 차관(Ministere de l' Egalite des territoires et du Logement, Ministere delegue a la Ville)
- 내무부(Ministere de l' Interieur)
- 환경-지속가능-에너지부(Ministere de l' Ecologie,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 l' Energie)
- 노동-고용-직업훈련-사회적대화부, 직업훈련 및 도제교육 담당 차관(Ministere du Travail, de l' 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Ministere delegue a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a l' Apprentissage)
- 국방부(Ministere de la Defense)
- 문화-통신부(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 고등교육 및 연구부(Ministere de l' Enseignement superieur et de la Recherche)
- 여성권리부(Ministere des Droits des femmes)
- 농업-농식품-산림부(Ministere de l' Agriculture, de l' Agroalimentaire et de la Foret)
- 국가개혁-지방자치부(Ministere de la Reforme de l' Etat, de la Decentralisation et de la Fonction publique)
- 해외령부(Ministere des Outre-mer)

4.2. 지방행정조직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레종(région)과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데빠르뜨망(départe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청소년 담당부서는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Directions régionales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DRJSCS, 22개)이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청소년 담당부서로는 사회통합실(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DDCS 50개) 혹은 사회통합-주민보호실(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 la cohésion sociale et de la protection de la population, DDCSPP46개)가 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DDCS를, 인구 4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DDCSPP가 설치되어 있다[85]. 또한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담당부서(DDCS)는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 청소년 담당부서를 겸하고 있다. 그 밖에 해외령에 청소년-체육실(4개)을 포함하여 다수의 청소년, 스포츠, 사회통합 관련 부서들이 있다.

아퀴텐트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DRHSCS)의 조직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청소년-스포츠-사회통합실장이 관장하는 업무분야는 "교육훈련/자격" "사회통합" "청소년, 대중교육, 단체생활" "스포츠" "사회안전재판소"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청소년, 대중교육, 단체생활" 분야의 하위 업무로 1) 문해교육, 지역대중교육, 유럽봉사서비스, 2)청소년 및 다문화적 이동, 유럽 청소년 프로그램, 3)청소년 정보, 진로서비스, 유럽청소년기금 및 청소년대중교육 협력기금 사업, 4)단체생활 및 사회연대경제, 5)군복무, 미성년자 단체수용이 있다.

85) 프랑스 스포츠-청소년-대중교육-단체생활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jeunes.gouv.fr/ministere-1001/missions-et-organisation/organisation-du-ministere/
http://www.sports.gouv.fr/index/qui-sommes-nous/organisation/l-organisation-territoriale-drdjs/services-deconcentres-drdjs-et/



자료 : 아퀴텐느 광역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aquitaine.drjscs.gouv.fr/IMG/pdf/organigrammejanvier2013.pdf

[그림 5] 프랑스의 Aquitaine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행정체계

5.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이슈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에서 "백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공약으로 "2012년보다 2017년에 청소년들이 다 잘 살게 한다"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21일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부처 청소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를 개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3개의 청소년정책분야를 선정하고 47개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르몽드지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범부처 청소년위원회는 1990년 이래 두 차례밖에 개최되지 않았을 정도로, 프랑스 정부가 청소년정책에 이렇게 적극적인 적은 없었다. 현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에 관한 정책만이 아니라, 주거, 건강, 여가, 국제이동,

참여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위주 정책에서 일자리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 포기된 15%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차이가 있다" [86].

2013년 2월 21일에 발표한 청소년정책 요약본을 중심으로, 현 프랑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정책 13개 분야와 그 선정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현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정책 13개 우선분야 및 선정배경

청소년정책 13개 우선분야	선정배경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진로정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15-26세 청소년 실업률 : 대졸 이상 9%, 중졸 이하(대학입학자격시험 불합격자 포함) 46% – 2007년에 실업상태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소년의 22%가 5년 후인 2012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함. – 청소년들에게 진로는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 주어진 결과로 여겨짐. 진로결정 지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성공하도록 지원	– 졸업장 없이 학업을 종료하는 청소년 수가 매년 13만 내지 14만명 (동일 연령대 청소년의 약 1/6) – 16-18세 청소년이 중도탈락자의 57%를 차지함.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예방과 치료 개선	– 대학생의 33%가 비용문제로 잘못된 치료를 받으며, 대학생의 18%는 학생의료보험이 없음.
청소년의 주거마련이 용이하도록 함	– 청소년이 전체 세대 중에서 주거 임대 노력을 가장 많이 함. – 30세 이하 청년의 1/4만이 서민주거시설에 거주 – 청소년의 53%가 임대료 인상 문제가 있는 민간 임대 주거시설에 거주
청소년의 일자리 진입 지원	– 매년 74만명의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함 – 2008년 중반 이후로 청소년 일자리 감소,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의 1/4이 실업자
청소년 취업과정의 안정성 확보	– 30세 이하 청년층이 빈곤인구의 50%를 차지함 – 청년층 빈곤은 취업난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음.
수감된 청소년의 재활과정 지원	– 수감 당시 미성년자의 재범률이 75%임 – 교도소에 있는 미성년자의 80%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포츠, 예술, 문화, 양질의 시청각, 디지털 활용 지원	– 학교교육이 대중화되었음에도 예술, 문화, 스포츠 활동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음
청소년의 디지털문화 향상, 인터넷 관련 새로운 직업 진출 지원	– 디지털 "단절" 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활용의 다각화에 기인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적 활용이 높음(교육목적 인터넷 활용률이 최고 교육수준에서 91%, 최저 교육수준에서 55%)
청소년의 유럽 및 국제 이동 확대/ 다양화	– 프랑스는 국제이동 기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기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류층의 접근이 더 용이함
청소년 참여 확대	– 사회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중요하나, 참여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2세 이후에 학업을 종료한 청소년 중 1/2 정도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함.

86) 르몽드지(*Le Monde*) 2013년 2월 21일 인터넷기사(기사제목: 47 mesures tous azimuts pour les jeunes).

청소년정책 13개 우선분야	선정배경
공적 공간에서 청소년의 대표성 제고	- 프랑스는 비교가능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청소년 참여 저조
학교와 청소년 간의 관계 강화, 차별해소	- 청소년들은 국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고용주, 임대인, 학교가 청소년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함.

자료 :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2013)의 *Priorité Jeunesse–Synthèse*에서 편집함.

6. 청소년활동정책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우리나라 정책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6.1. 단체수련활동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활동은 종종 학교단위와 같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소규모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센터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 소그룹을 만들거나, 소규모 친구 그룹을 받고 있다. 학년 단위로 수련활동을 신청한다고 해도, 프랑스의 학교규모나 한 학교의 학년 규모는 대도시 학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다. 소규모 그룹 위주의 청소년수련활동은 활동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나 안전을 보장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단체활동시설(바캉스센타 및 여가센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비용이 비싼 해양스포츠, 문화예술, 승마 등의 프로그램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방학교와 같은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도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의 수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많은 수가 있다. 바캉스센터나 여가센터를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의 대표는 퇴직자들이 많고, 수익창출보다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6.2. 청소년지도자 양성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이 방학기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청소년지도자가 필요하다. 연령에 따라 규모는 다르나 소규모 그룹별로 청소년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수련활동이 집중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방학이나 휴가기간에 아르바이트 혹은 계절 일자리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직장인의 여름휴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휴가기간에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직장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학생 중에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학생 인력을 활용하면, 소그룹별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3. 청소년시설

프랑스에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정보센터와 진로정보센터가 있다. 청소년정보센터는 파리의 청소년정보문서센터(CIDJ)부터 지방의 청소년정보센터, 센터는 아니나 유관기관에서 청소년정보를 제공하는 곳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정보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 청소년정보망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가 3,000명이 이른다. 청소년 정보센터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망의 발달은 청소년들 사이에 정보격차를 줄임으로써 미래세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청소년정보망과는 별도로 진로정보센터도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전국의 진로정보센터와 청소년정보센터에 학업과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립교육·직업정보원(ONISEP)이 있다. 파리의 청소년정보문서센터(CIDJ)와 국립교육·직업정보원(ONISEP)는 정보수집은 물론 자체적으로 출판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대형기관이다.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운영하는 "커리어넷,"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 등이 있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급별, 학년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진로와 직업 이외에,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건강, 주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6.4. 청소년활동 정책의 지속성

프랑스의 경우 성공적인 청소년활동 정책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5가지 사례(바캉스센터 및 여가센터 프로그램,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개방학교,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 견학활동, 청소년의

회, “행동하려는 욕구”)를 제시하였는데, 기업체 견학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사례는 1990년대 혹은 그 이전부터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기업체 견학활동은, 청년층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7. 참고문헌

CIDJ(2012). *Rapport d'activité 2011.*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Jeunesse(2013). *Priorité Jeunesse-Synthèse.*

Foirien, R.(2012). Les accueils collectifs de mineurs avec hébergement en 2011.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STAT-INFO.* n° 12-04. 2012년 11월.

Koebel, M.(2002). Le secteur de l'animation socioculturelle, in Camy, J. & N. Le Roux (2002). *L'emploi sportif en France : situation et tendances d'évolution*. MEN, AFRAPS/RUNOPES. 361-374.

Le Rohellec, A. & G. Truchot(2005). 580 000 diplômes de l’'animation ont été délivrés depuis 1995.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 *STAT-INFO*. n° 05-02. 2005년 5월.

Lebon, F.(2007). *Les Animateurs socioculturels et de loisirs : morphologie d'un groupe professionnel(1982-2005).* INJEP.

Ministère des sports, de la jeunesse, de l'éducation populaire et de la vie associative(2012). *Les chiffres-clés de la jeuness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Edition 2012.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Direction générale des ressources humaines(2011). Concours du seconde degré – Rapport de jury Session 2011.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국립교육·직업정보원 : www.onisep.fr

위키페디아 : fr.wikipedia.org

행동하려는 욕구 : www.enviedagir.jeunes.gouv.fr

청소년-문화의 집 연합회 60주년 기념 홈페이지 : www.60ansdesmjc.fr

청소년정보문서센터 : www.cidj.com

프랑스 교육부 : www.education.gouv.fr

프랑스 체육-청소년-대중교육 및 단체생활부 : www.jeunes.gouv.fr

3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이 규 철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장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이 규 철(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장)

1.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87)]

2004년 교육 및 진로지도법(The Educational and Career Guidance Act of 2004)으로 귀결된 2004년의 진로지도 개혁법(Guidance Reform Act)으로 이어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런 요인 중에는 OECD 국가들의 교육 수준과 고용 수준에 대한 초부문적 지도와 비교 분석에 관한 다양한 OECD 보고서가 있다. 진로지도와 교육 지도는 청년들이 더 높은 수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점점 더 높아지는 지식 기반 노동 시장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의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교육 및 연구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한 덴마크의 진로 교육이 여전히 지향하고 있는 명확한 목표는 청소년 집단의 최소 95%가 일반 고등학교(upper-secondary)/의무 교육 이후 과정(post-mandatory schooling)을 마쳐야 한다는 것과 청소년 집단의 최소 60%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와 지역의 지도 센터를 설립한 것은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에 관련하여 국가적 목표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세계화 기금을 마련한 결과로써 가능했다.

2008년에는 각 지방의 지도 센터에 25세까지의 청년 중 의무 교육 이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의무가 부여되었다.

2010년에는 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에게 자신의 전담 지도 상담사와 함께 구성한 교육 계획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창의력 개발 개혁안(The Youth Package Initiatives)가 구현되었다.

이 법률은 덴마크의 청소년 교육 및 취업 수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이며 실제로 덴마크에서 청소년 인구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청소년 교육 지도에 더 확실한 역할을 부여했다.

---

87) 2012 진로교육 국제포럼 발표문 요약문 인용. Dr. Michelle Beldner (Education Manager and Head of Section, City of Copenhagen

청소년 창의력 개발 개혁안(The Youth Initiative Reform Package)는 초등 교육에서 중등 교육으로 전환하고 상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교육적 준비 상태
- 지역 교육 기관의 책임과 약속을 공식화
- 상담사, 부모 및 관계 기관의 책임과 약속("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을 공식화

뿐만 아니라 청소년 창의력 개발 개혁안은 진로 교육 및 교육적 지도의 실무에 중심 요소로서의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개혁안을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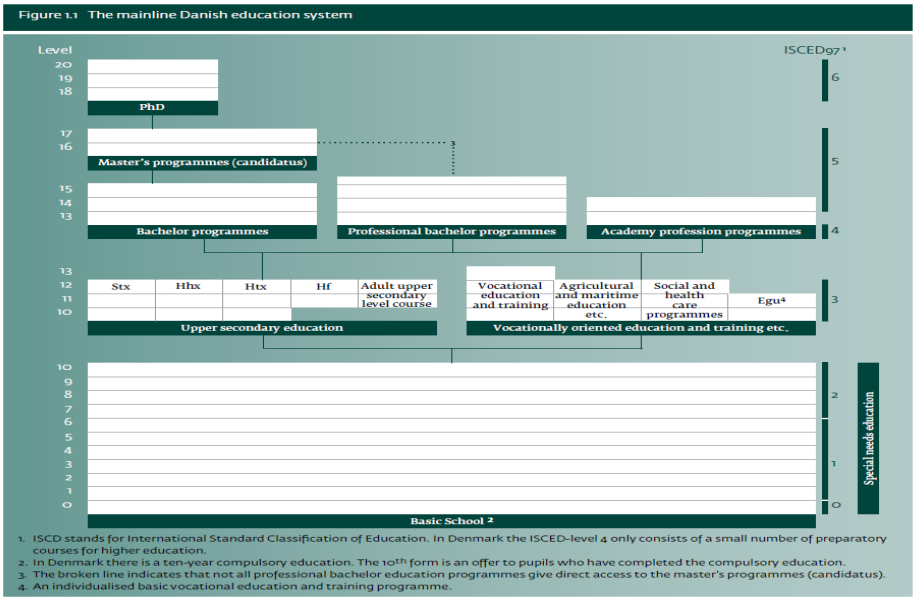
- 18세까지 의무적 교육
- 교육적 준비 상태 평가
- 온라인 지도/상담
- 집합적 그룹 지도 확대, 개인 기반 지도 축소

2. 청소년활동정책의 현황

2.1 학제 현황

덴마크 교육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자유교육)이 80 대 20 정도로 공존하는 체제다. 공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자유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은 완전히 자유롭고 국가의 통제가 전혀 없지만 국가가 교사의 급여를 포함해 7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체제로 이어지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9학년 체제로 묶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와 직업학교로 나뉘는데, 직업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직업학교로 구분되어 있다.



http://eng.uvm.dk/Education

자유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괄하는 종합학교에 해당되는 자유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학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프터스쿨과 포크스쿨이 존재한다. 애프터스쿨은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1년 정도 머물면서 공부를 하는 학교를 말한다. 즉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확정하지 못했거나 자아를 찾고 싶은 아이들, 혹은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 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셈이다. 이 학교들은 다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학교마다 나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자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주로 오지만 7-9학년 사이의 아이들이 바로 와서 몇 년씩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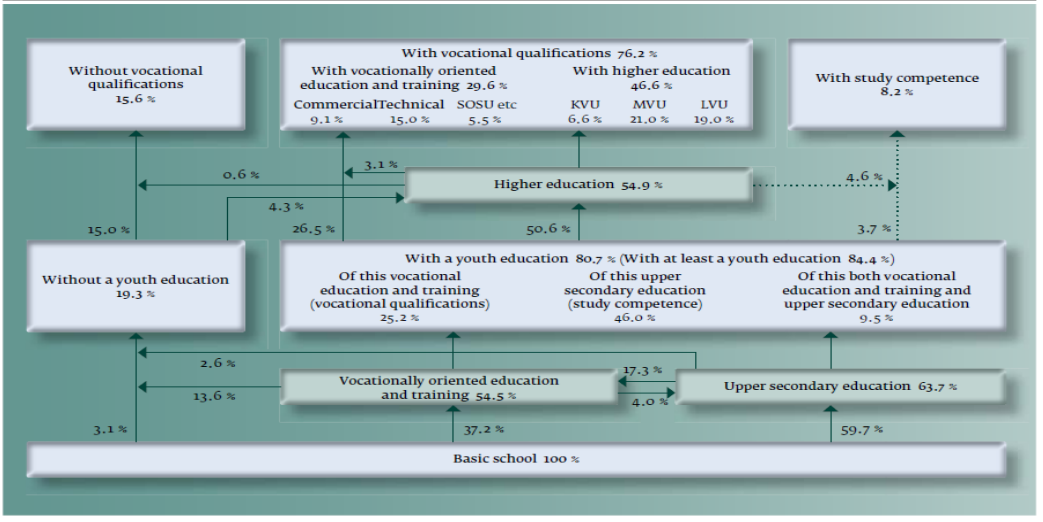
그리고 포크스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이곳에서 1년 정도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 기관이다. 물론 이 학교에는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뿐 아니라 주로 20 초중반에 해당되는 성인들도 많이 와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기도 한다고 했다.

다음 표는 덴마크 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이다.

Form level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Implemented since 1 August 2005)									
Danish	300	270	210	180	180	180	180	180	180
English			60	60	90	90	90	90	90
Christian studies	60	30	30	30	30	60		30	30
Social studies								60	150
History			30	30	30	60	60	60	
PE & sport	30	60	60	90	90	90	60	60	60
Music	30	60	60	60	30	30			
Art	30	60	60	60	30				
Handicr., wood/metalwork, home economics				60	120	120	90		
Mathematics	150	15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Nature/technology	30	30	60	60	60	60			
Geography							30	60	30
Biology							60	60	
Physics/chemistry							60	60	60
German/French							90	120	120
Optional subjects								60	60
"Hour of the class"	30	22,5	22,5	22,5	22,5	30	30	30	30
Total (at least)	600	600	660	660	660	660	660	660	660

www.eurydice.org

Figure 2.2 Educational profile 2008. A youth cohort's expected paths through the educational system in the 25 year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9th form in 2008



Source: UNI•C Statistics & Analysis

http://eng.uvm.dk/Education

2.2 청소년관련 시설 및 인구 현황

2.2.1. 인구현황

Age Pyramid (1.1.2004)

Age	Men	Women	Total
0 - 6 yrs	238 870	227 575	466 445
7 - 16 yrs	345 655	327 431	673 086
17 - 24 yrs	239 268	232 334	471 602
25 - 39 yrs	590 126	575 306	1 165 432
40 - 64 yrs	914 364	902 133	1 816 497
65 + yrs	341 852	462 726	804 578
Total	**2 670 135**	**2 727 505**	**5 397 640**

www.eurydice.org

Table 5.2 Number of pupils in basic school per form level

	2000[1]	2005	2006	2007	2008
	Number				
Basic school, total	**658,824**	**710,835**	**709,936**	**704,974**	**703,623**
Pre-school class	–	67,362	67,635	65,413	64,822
1st form	–	67,031	67,153	66,700	65,988
2nd form	–	68,123	66,663	66,216	66,759
3rd form	–	67,861	68,022	66,033	66,404
4th form	–	70,312	67,585	67,504	66,097
5th form	–	69,563	70,023	67,005	67,762
6th form	–	68,704	69,660	69,772	67,427
7th form	–	68,186	68,427	69,169	69,518
8th form	–	65,374	67,692	67,237	68,271
9th form	–	64,180	64,157	67,248	67,669
10th form	–	33,421	32,108	32,667	32,906

Remark: Includes figures for municipal and private basic schools and continuation schools.
Note 1: Figures per form level are not available for 2000.
Note 2: For the years 2005 and 2006, the number of pupils per class level do not add up to the basic school total because the total includes pupils for which the class level was not given.
Source: UNI•C Statistics & Analysis

Table 1: Number of educational institutions, 2011

	2011 IN NUMBERS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2,201
- Municipal schools	1,408
- Continuation schools	266
- Private schools	527
Other schools with primary and lower secondary education (1)	322
Other institutions within the field of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2)	95
Adult education institutions	225
General upper secondary schools	149
Vocational colleges etc.	105
Academies of professional higher education	12
University colleges, engineering colleges etc.	9
Universities	8
Other institutions with higher education	69
Educational institutions, total	**3,195**

Comments: The table shows legal entities – i.e. independent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units with one or more departments.
Note 1: Comprises municipal youth schools, youth boarding schools and special schools for children. Furthermore, special needs day schools and community homes.
Note 2: Comprises household and needlecraft schools as well as production schools.
Source: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data extracted October 2011.

Table 2: Pupils/students in the main education system by gender, number and percentage 2010

	MEN		WOMEN		TOTAL	
	IN NUMBERS	PER CENT	IN NUMBERS	PER CENT	IN NUMBERS	PER CENT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s	365,421	51	348,228	49	713,649	100
- compulsory part	345,656	51	328,872	49	674,528	100
- form 10 etc. (1)	19,765	51	19,356	49	39,121	100
Non-qualifying education	3,858	61	2,473	39	6,331	100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	61,159	47	70,346	53	131,505	100
Vocational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IVET)	71,521	56	56,717	44	128,238	100
- Basic programme	26,600	58	19,519	42	46,119	100
- Specialized programme	43,093	54	36,374	46	79,467	100
- Other IVET	1,828	69	824	31	2,652	100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11,370	55	9,372	45	20,742	100
Medium-cycle tertiary education	54,934	40	81,811	60	136,745	100
- Professional bachelor education	23,715	34	45,421	66	69,136	100
- Other medium-cycle tertiary education	996	54	848	46	1,844	100
- University bachelor education	30,223	46	35,542	54	65,765	100
Long-cycle tertiary education (candidatus)	25,124	44	32,559	56	57,683	100
PhD etc.	4,587	51	4,328	49	8,915	100
Total	**597,974**	**50**	**605,834**	**50**	**1,203,808**	**100**

Note 1: Includes form 11 and Maritime Preparatory Course
Source: 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

www.uvm.dk/facts

2.2.2 청소년 시설

<표 III-3> 청소년 진로지도센터 및 지역 진로지도센터의 개요

구분	청소년 진로지도센터 (Youth Guidance Center, UU: Ungdommens Uddannelsevejledning)	지역 진로지도센터 (Regional Guidance Center, Studievalg)
목적	의무교육기간에서 후기중등교육으로의 전환을 도움	후기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을 도움
현황	총 46개소	총 7개소
대상	• 25세까지의 모든 청소년 - 의무교육기간의 학생: 6~9(10)학년 - 19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교육·훈련 고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08년부터 25세로 확장됨) - 19~25세 가운데 교육·훈련 프로그램 또는 고용과 관계된 정보를 얻고 싶거나 상담을 원하는 학생	• 후기중등교육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 • 어떠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등교육프로그램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및 성인
목표	청소년이 교육·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진로 관련 기술(skill)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질 높은 정보의 제공 및 고등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입직 가능한 직업 관련 정보 제공
상담활동	• 센터 or 단위학교 • 개인 or 그룹	• 워크숍, 세미나, career fairs • 개인, 집단 상담세션

자료: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4). Guidance in Education: a new guidance system in Denmark. The Danish Mistry of Education. 재구성.

2.3 지도인력 양성 현황

2.3.1 사회교육사 양성대학

사회교육사(social pedagogical work)는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중간쯤 되는 개념으로서 덴마크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보인다. 사회교육사는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방과 후 돌봄 교사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4가지 영역이 각각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덴마크에서는 이 4가지 영역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회교육사를 기르는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교과'와 '현장 실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일반 교과'는 교육이론(페스탈로찌, 몬테소리, 프뢰벨 등), 덴마크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개인과 사회(사회학), 건강과 몸(움직임), 표현(음악과 움직임), 공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론을 배우지만 실습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유치원이나 특수교육, 방과 후 학교나 청소년 센터 등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시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체 교육과정을 묶어 다음과 같이 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1학기에는 8주 이론과 9주 실습을 진행한다. 2학기 20주 동안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영역을 선택해 좀 더 심화된 이론을 공부한다. 3학기 20주는 현장 실습 동시에 그 실습한 것을 학교에 와서 점검받는다. 4학기에는 다시 이론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다. 5학기에는 자신이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을 따라(유치원, 청소년/어떤 사회적 문제, 장애학생) 현장 실습을 나간다. 6학기에도 현장 실습을 하는데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에 맞는 현장을 선택한다고 했다.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교육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정체성을 찾아 하늘을 날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듯, 사회교육사는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학교에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도 있지만 주로 20대 중반의 사람들이 많이 입학을 한다고 했다. 학교를 둘러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거나 어떤 문제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연극으로 표현해 보는 식의 수업을 하고 있었다. 즉, 자신들이 실제로 나가서 도와야 할 아이들을 제대로 돕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학교에 대한 소개와 수업 참관 등을 하면서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 특별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교육 등이 하나로 묶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 외에 사회교육사라는 돌봄 중심의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교육의 또 다른 측면들을 보완한다는 면에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일반사범 대학에서도 사회교육사 양성과정이 있다. 이들은 한 학기정도를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서로의 힘든 점을 공유하고, 역할에 대한 명료함을 확증하는 시간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학교 내에서 역할 균형을 맞추고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2.4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2.4.1 애프터 스쿨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 가지 않고 삶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준비하겠다는 학생이 있을 경우 애프터스쿨에 진학한다. 이곳에서 10개월 동안 운동도 하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해 보는 것을 환영한다. 이후에는 집에 들어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8학년이나 9학년 과정을 두고 있는 애프터스쿨도 있지만 여기는 10학년만 존재한다.

크리스텐 콜이 말한 “절대 아이들이 테스트하지 마라.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교사에게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아이들이 삶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라” 는 말이 이 학교의 중요한 철학이다.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는 긍정적이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에너지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

하루 일과를 보면 먼저 6시 45분에 기상해서 20분 정도 산책을 한다. 그 다음에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한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식사를 만드는 일을 돕기도 한다. 식사 후 1교시 수업을 하고, 오전 10시가 되면 강당에 모인다. 강당에서는 노래를 한 두 곡 부르고(그룬트비가 만든 노래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노래가 더해 진 국민가요 책) 다시 2교시 수업을 한다. 12시에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철학, 음악, 운동 등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학교운영 경비는 한 학생당 연간 110,000크로네가 소요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50,000 크로네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60,000 크로네를 지불한다.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25,000 크로네를 더 지원해줍니다. 1845년 제정된 덴마크 헌법에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꼭 학교에 갈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이 아닌 자유학교나 애프터스쿨 학생에게도 재정지원이 된다. 홈스쿨을 해도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 공교육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교육비의 75%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는 셈이다. 국가가 공교육 재학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헌법의 제정에는 그룬트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룬트비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이 헌법에 포함된 것이다.

2011년 애프터 스쿨 재학생은 덴마크 전체에서 28,000명 정도로 이 나이 또래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애프터스쿨에 다니는 셈이다. 애프터스쿨은 16년 동안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경제난으로 조금 줄어들었다.

현재 이 학교에는 14명의 교사가 있는데, 이 중 7명은 자유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출신이고, 나머지 7명은 일반 공교육 교사양성과정 출신 교사들이다. 이 학교가 추구하는 이념만 공유하고 있으면 출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공교육 교사와 애프터스쿨의 교사 간 인적 교류는 없으며, 애프터스쿨 간에는 교사들의 교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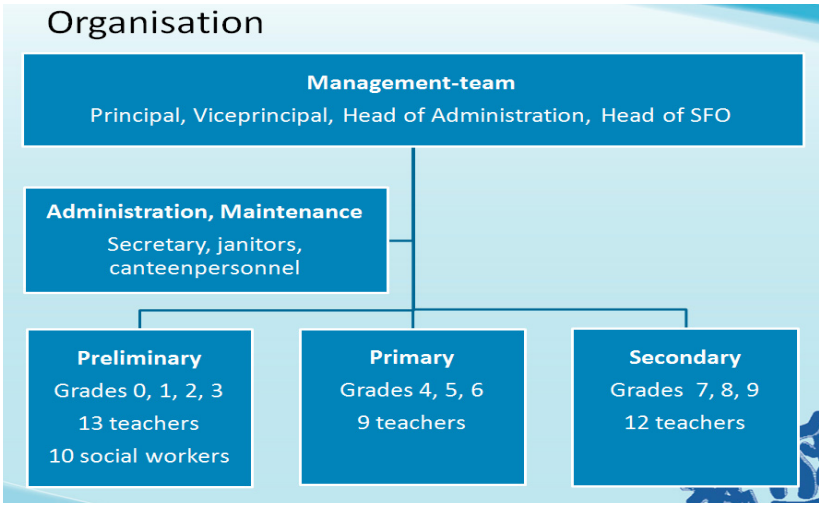
학교에서 성경과 신앙을 가르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룬트비와 콜의 사상에 차이가 있다. 그룬트비는 학교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콜은 학교에서 성경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의 인격 형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일반적으로 애프터스쿨에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다만 기독교 역사, 기독교 이야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2.4.2. Mørkhøj Skole After -school club

ucc 대학 근처에 있는 folkskole인 Mørkhøj Skole를 방문하였다. 전에도 introcamp 때에 대학생들과 함께 방문을 한 적이 있기에 낯설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매우 간략하고 명쾌하게 진행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Principal Carsten Bott 이다. 맨 먼저 교육 이념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The well-being of our students is constantly in focus, but we tend also to be aware of the general well-being of our personnel in order to maintain a high productivity. 왜 그런가의 질문에 Because happy kids learn better! 아주 명쾌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 2.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 3. 우리는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한다. 4. 우리는 서로에게

열려 있다. **Management-team은 Principal, Vice principal, Head of Administration, Head of SFO이고, Preliminary은 Grades 0, 1, 2, 3은 13 teachers이고 10 social workers가 있으며, Primary는 Grades 4, 5, 6년은 9 teacher이고, Secondary는 Grades 7, 8, 9이고 12 teachers 교사가 있다. 실제적인 가르침의 초점은 다른 방법으로 수학을 가르치며,** Fun at Mørkhøj – local geography, Theater, Having fun with Letters, Building from trash, Baking and food-making, (againist obisty), Wood workshop이다.

그리고 SFO가 이 학교에는 있다. 200,000 children attend SFO in Denmark. In Gladsaxe 97 % of all the children aged 6-10 attend SFO. Dependant on parents payment (1300 dkk/month). 이분들이 하는 것은 Attainment targets: Responsibility, Natural assertiveness, Self control, Empathy, Collaborative skills, Fantasy, expression and activit이다. 일전에 ucc 대학에서 강의를 사회교육 양성자 과정 학생들하고 함께 들었다. 이분들은 소셜 워크 양성과정(사회교육 양성자 과정)으로 3년 6개월 과정이고, 교사와 사회교육양성자는 동일한 자격 부여 받고, 학생들을 돌보는 일이 주된 일이며, 과목을 나누지 않는다. 이 학교에는 현재 160 children aged 6-10살에 10명의 social workers가 있다.



Mørkhøj Skole Principal Carsten Bott 교장 선생님 학교 소개

2.4.3 Endrup skole

엔드럽이 특징 중 하나는 방과 후 학교를 지역에서 운영하며, 학교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2층 건물로 된 집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 뜨개질 수업, 비석 만들기 등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양하게 다양하게 수업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다시 학원으로 가는데, 덴마크아이들은 primary school은 방과 후 학교 간다. 그리고 secondary는 클럽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다. 어느 선생님이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해서 숲 속을지나 갔는데, 학생들이 기사 복장을 하고 있었다. 마치 행수만 초등에서 마을 활동인 나니아 연대기를 보는 듯 했다. 재미도 있고, 유익한 방과 후 학교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즘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이 중요시 되고, 클럽 활동이 대두되는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방과 후 활동은 클럽활동으로 이어지며 어른이 돼서도 지역사회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된다. 덴마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Endrup skole 클럽활동 참가비는 학부모의 수입에 따라 3종류로 나눈다.

2.4.4 Drivhuset **After –school club**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06:30~08:00, 오전 11:00~ 오후 17:00이고, 학년별 클럽은 저학년 클럽은 0~3학년 아동대상이고, 고학년 클럽은 4~6학년이다. 장소 및 실내외환경은 학교 바로 옆 100m 거리 안에 있고, 다양한 교실이 건물 안에 넓게 있다. 또한 건물 밖에서 아동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넓은 뜰이 있다. 근무 교사는 full time 2명, part time 5명이다. 프로그램 및 참여방식은 컴퓨터, 스포츠, 공예, 바느질, 보드게임, 캠프, 자연활동, 음악, 미술 등이고, 날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다. 방학 때나 주말에는 캠프 등 주말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용료는 수입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별 활동비가 아닌 월 전체 이용료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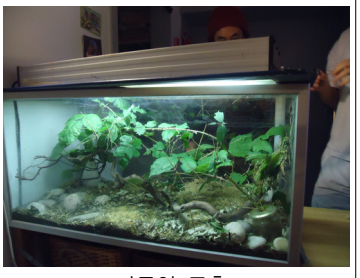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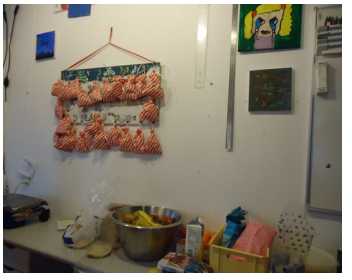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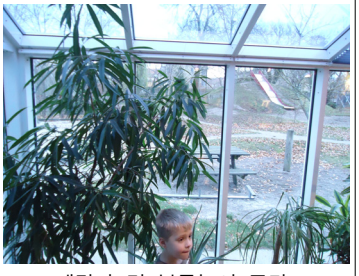
Dagtilbud i København	Forældrenes egenbetaling pr. måned
Dagpleje	2.900 kr.
Vuggestue	3.025 kr.
Børnehave*	2.330 kr.
Halvtidsbørnehave	1.165 kr.
Deltidsbørnehave	1.748 kr.
Fritidshjem/KKFO**	1.275 kr.
Specialfritidshjem**	1.275 kr.
Fritidsklub**	518 kr.
Juniorklub**	518 kr.
Specialfritidsklub**	518 kr.
Ungdomsklub**	59 kr.

Drivhuset After –school club의 월 전체 이용료 분류표

학교와의 연계는 교장이 Head master 역할을 하고, 문제 아동 관리에 있어 담임교사와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고, 장애아동이나 ADHD등 아동 수업이나 체험학습에 클럽교사가 동행하여 돌본다. 특히 아침 돌봄 시스템이 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아침식사 제공 및 학교 등교시키기를 하고 있다. 아침 근무 교사들이 순번을 정해 근무하고, 1일 평균 20~25명 아침 프로그램 이용한다. 간식 제공은 양질의 간단한 간식을 매일 제공하고 아동들이 싼 값에 사먹을 수 있다. 소속 및 재정지원은 학교관리자가 함께 관리하고 지역사회기관에서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클럽 모습은 다음과 같다.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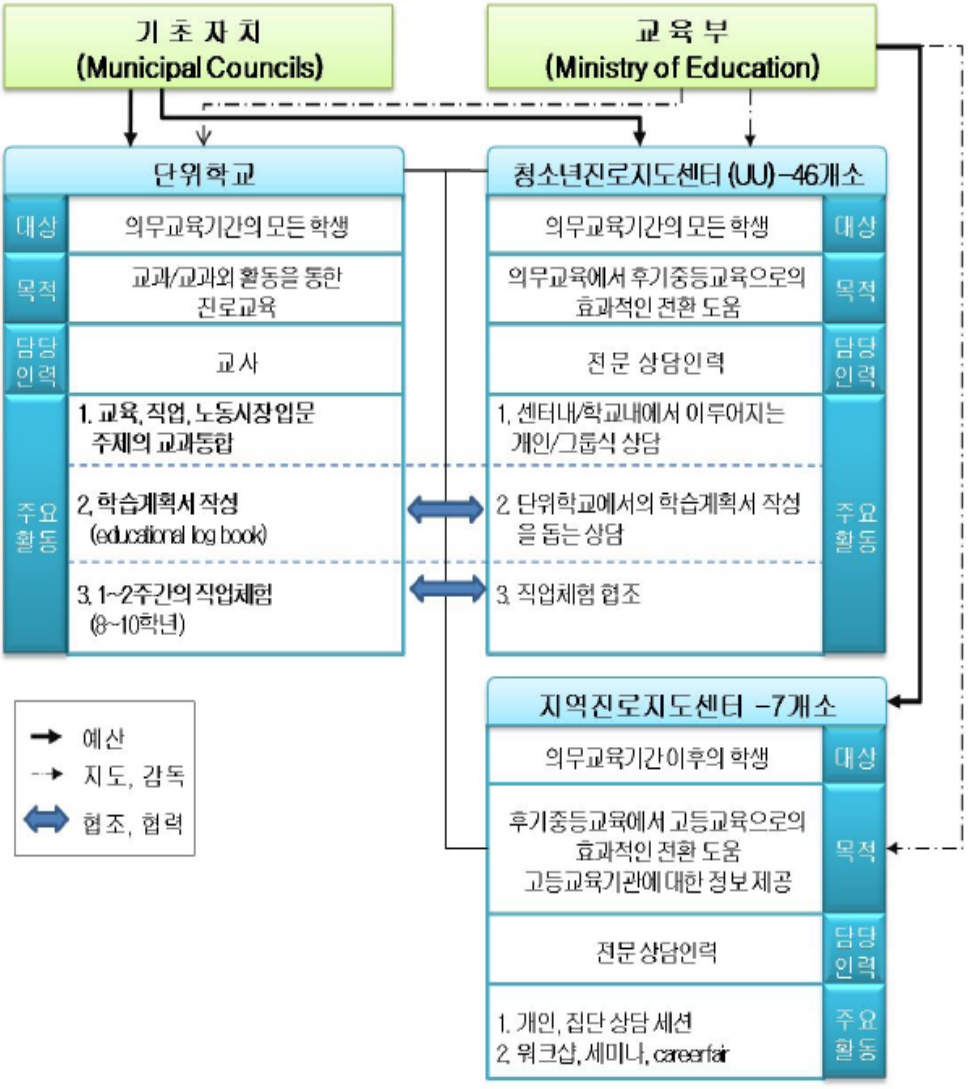
<table>
<tr>
<td>

클럽입구</td>
<td>
스포츠, 오락 공간</td>
<td>
요리활동</td>
</tr>
<tr>
<td>
휴식공간</td>
<td> 
나뭇잎 곤충</td>
<td> 
간식</td>
</tr>
<tr>
<td> 
베란다 및 블록놀이 공간</td>
<td>
음악실</td>
<td>
출석표시</td>
</tr>
</table>

88) 덴마크 UCC 대학에 함께 갔던 관악초 박은지 선생님의 자료를 인용한다.

3.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89)]

[그림 III-1] 덴마크의 진로교육 운영 체계



89) 김나라. "덴마크의 덴마크의 진로교육 체제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사례 고찰". 한국직업능률직업 개발원. 2009

4.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이슈

첫째, 현재 덴마크의 학교 문화의 중요한 이슈는 (School cultureal issues)?[90]

1) 시스템 전체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2) 온타리오에서 대안을 찾아본다.
3)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합하는 것이다.
4) 노르딕 스쿨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찾는다.
5) 교사 단체와 갈등이다.

덴마크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 사회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덴마크를 배우러 왔는데, 그들의 평등의 가치가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고 가치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새로운 세계에 맞게 변경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덴마크도 이민자를 받고 난민을 받으면서 그들에 맞는 교육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PISA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학부모들의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나 심지어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도 관심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견고히 추진하려고 한다. 사실 덴마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10~15%정도이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강조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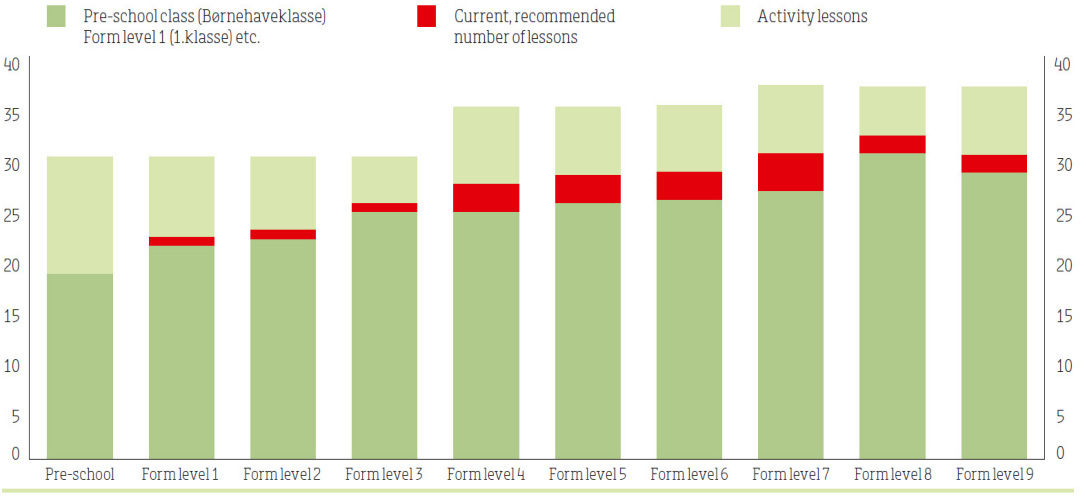
또한 학교의 문화적 이슈는? 학교를 학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PISA 평가 이후 그리고 세계화이후 덴마크의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수준을 높이려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덴마크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는 학부모들은 공교육 제도가 아닌 프리스쿨을 선택하도록 하며, 정규 교육과정은 자신들의 원래의 원칙과 방향대로 갈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The magic formula은 돌봄, 나눔, 도전이다. caring, sharing, daring 즉, CSD 이다. 덴마크도 끈임 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 어쩌면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접하고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12년 좋은 공립학교를 만들기 위한 비전 선포를 했다.

90) UCC 대학의 school management Niels-Erick 2012년 경기도 연구년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 quality improvement of the Public school: More lessons and more time for activity



Note The figure shows the number of lessons in the integrated school day inclusive breaks. The total number of lessons in the chart is based on the current, recommended number of lessons, extra lessons and the new activity lessons.

http://eng.uvm.dk/Education

A quality improvement of the Public school: The extra lessons when distributed on form levels and subjects

Subject	Improvement	Form level 1	Form level 2	Form level 3	Form level 4	Form level 5	Form level 6	Form level 7	Form level 8	Form level 9
Extra lessons		**1**	**1**	**1**	**3**	**3**	**3**	**4**	**2**	**2**
Danish	Before	11	10	9	6	6	6	6	6	6
	After	11	10	9	**7**	**7**	**7**	**7**	**7**	**7**
Maths	Before	5	5	5	4	4	4	4	4	4
	After	5	5	5	**5**	**5**	**5**	**5**	**5**	**5**
Natural sciences/Tech.	Before	1	1	2	2	2	2	-	-	-
	After	1	1	2	**3**	**3**	2	-	-	-
English	Before	-	-	2	2	3	3	3	3	3
	After	**1**	**1**	2	2	3	3	3	3	3
Electives	Before	-	-	-	-	-	-	-	2	2
	After	-	-	-	-	-	-	**2**	2	2
Practical/Creative subj.*	Before	3	6	6	9	9	8	5	2	2
	After	3	6	**7**	9	9	**9**	5	2	2

Note The time is calculated as lessons of 45 minutes exclusive of breaks. The current number of lessons (before) refer to the recommended number of lessons. The chart only includes the subjects that will undergo a change in the number of lessons. Adding up the lessons will therefore not get a sum equivalent of the total number of lessons per week.
* Practical/creative subjects include: Design, wood and metalwork, visual arts, music, home economics and physical education.

Sources Executive order for the number of lessons in the public school for the school years 2006/7 to 2010/11 and consecutive years.

http://eng.uvm.dk/Education

5. 청소년활동정책의 시사점

〈코펜하겐의 스파이렐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

첫째, 생활과 문화의 경계가 없고 서로 넘나든다. 생활이 문화이고 문화가 생활이다. 2012년 11월 24일 스파이럴 교회에서 CRACOW YOUTH philharmonic 오후 4시 코펜하겐 고등학교 연합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 1시간 30분 공연을 봤다. 교회에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고, 연합 합창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한다.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음악 감상회인데, 사람들로 초만원이다. 학생들의 연주 실력은 아마추어인 내가 평가하지만 수준급이다. 덴마크에서 몇 번 경험해본 것들 중에서 최고이다.

그리고 덴마크가 가진 힘을 또 본다. 문화를 즐길 줄 알고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으로 갖춘 나라이다.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덴마크이다. 교회는 문화적 공간으로 기꺼이 자리를 내준다. 화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코펜하겐 교회 곳곳에서 음악회를 연다. 평소에 문화를 언제나 즐길 수 있게 개방 해 놓은 것이다. 문화적 접근성을 개방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의 향유를 즐길 수 있게 해 놓은 나라다.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은 Tchaikovsky Viloin Concerto in D major op. 35, I part 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Mozart의 Requiem를 듣는다. 이 곡은 Mozart가 작곡한 마지막 곡으로 그의 장례식에서 연주 된 곡이다. 미완성으로 끝난 작품인데, 여전히 여운이 남는다. 고등학생들로 편성된 합창단 50여 명 그리고 역시 고등학생 오케스트라 50여명이 함께 연주를 했다. 입장료는 1만원이다. 모처럼 평안했고, 사실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러웠다. 문화의 힘에서 느끼는 저력이 있었다.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그것을 나는 오늘 또 보았다. 가야 하는데, 여전히 배울게 많다는 것이 나의 발걸음을 자꾸 무겁게 한다.

둘째, 가족 중심과 지역 연대성의 강화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역 공동체 내)주말 커뮤니티'다.[91] 주 5일제가 정착된 덴마크는 지역 자치단체별로 주말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일종의 '클럽 활동' 격인 커뮤니티 형태는 축구 · 카누 · 배드민턴 · 비보잉 · 음악 · 연극 · 봉사 등 수십 가지다. 덴마크 총인구 550만 명 중 300만 명이 커뮤니티 등록자일 정도로 국민적 호응도 크다. 덴마크인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역시 이웃의 또래와 어울리며

91) 조선일보 2013.3.4. 필자 인터뷰 내용

〈코펜하겐 축제에 모인 청소년들〉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학부모도 자녀를 키우며 갖는 고민의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다. 여러 가정이 한데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다른 가정 부모를 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자연스레 진로 탐색으로까지 이어진다.

선택의 자유를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덴마크 교육의 특징이다. 덴마크에선 만 13세가 되면 누구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 있다. 작은 규모로나마 청소년 때부터 경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립 경험'을 쌓게 하려는 국가적 · 국민적 합의가 깔려 있다.

셋째, 융통성과 탄력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다. 덴마크 교육은 포크 하이스쿨 · 애프터스쿨 · 10학년 프로그램 3가지로 정리된다.[92] 포크 하이스쿨은 비형식 교육기관으로 18~24세의 학생들을 약 4개월간 교육한다. 입학을 위한 자격조건은 물론 시험도 없다. 상급학교 진학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음악 · 미술 등의 과목을 공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애프터스쿨은 14~18세에 이르는 학생들이 1~3년에 이르는 기간을 선택해서 인성 발달과 성숙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덴마크어, 수학, 물리, 외국어 등의 정해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전통적인 공립학교보다 실용예술을 강조하는 편이다. 5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10학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한 학년을 더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정규교육과 취업 외에도 직업 훈련 센터나 실제 직업 현장에서 20주 동안 연수를 받는다. 10학년 이수는 연수를 끝마쳤을 때만 가능하다.

넷째,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정책의 철학이 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게 하는 신념이 정책에 담겨 있다.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힘이 내재화되어 있다.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안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가장 귀한 선물로 생각한다. 어디를 가던 항상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던 사람들, 언제나 여유가 있다. 긴장감이 없다. 서로에게 긴장감이 없어서인지 따뜻하다.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이 없기도 하지만 서로에서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간혹 지나친 친절에 힘들기도 했지만 언제나 경계가 있다. 과연 그 친절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유의 힘이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등교를 해도 오후의 넉넉함이 언제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그건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에서 전철을 타다보면 느끼는 건데,

92) 서울신문 2013.6.18 22면

조는 사람이 없다. 며칠 전 한 명의 사람이 조는 것을 본 것 이외에 조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 피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긴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도 자는 아이들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졸지 않는 사회. 피로감을 느낄 수 없는 사회.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문화이다. 아이들과 아이들, 교사와 교사,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교사와 교장.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없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좋고, 힘들지 않는다. 그것은 제도가 낳은 선물이다. 좋은 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좋지 못한 제도는 사람들 사이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제도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제도의 중요성이다. 틀. 합의된 그리고 신뢰감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틀.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높은 의식 수준. 그것이 오늘날 덴마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만들어 놓은 틀은 이해관계에 상관하지 않고 존중하고 지키려는 시민의식이 뿌리를 내린 나라이다.

6. 참고문헌

김나라. “덴마크의 덴마크의 진로교육 체제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사례 고찰”. 한국직업능률직업개발원. 2009

좋은교사 북유럽 탐방 자료집.2011

http://eng.uvm.dk/Education

http://www.eurydice.org

http://www.uvm.dk/facts

세미나자료집 13-R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인 쇄 2013년 8월 20일
발 행 2013년 8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